

# 急驚風の 病因病理 및 治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이영섭\* · 조홍윤\*\*

大韓醫療氣功學會

## I. 緒論

驚風은 發熱과 痙攣을 主症으로 하는 救急疾患으로 小兒科 領域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病證이다. 驚風의 發生機轉은 臟腑가 薄弱하고 血氣가 充分하지 못한 小兒의 生理에 根據하고 있기<sup>1)2)</sup> 때문에 好發하는 年齡은 보통 6個月에서 4歲 사이로 보고 있으며 7歲 以後에는 發生率이 현저히 減少한다.<sup>3)</sup>

《內經》에서 “帝曰 人生而有病癲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謂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sup>4)</sup>라 하여 처음 言及된 以來로 驚風은 小兒科醫들의 主要 研究目標가 되어 왔다. 宋代에 와서 基本的인 五臟病理가 밝혀졌으며 明代에 이르러 많은 發展이 있어서 誘發原因 및 驚風

이 好發할 수 밖에 없는 小兒의 生理的 特徵과 治療方法들이 開發되었다.

대체로 驚風은 純陽에 屬하는 小兒의 特徵<sup>5)6)7)</sup> 때문에 發病되는 陽熱한 疾患으로 證狀의 虛實과 發病의 緩急에 根據하여 크게 急驚風과 慢驚風으로 區分한다. 急驚風은 實證이고 熱證으로 虛證, 寒證에 屬하는 慢驚風과는 큰 差異가 있으니 急驚風은 心熱肝風의 熾盛에 起因하나 慢驚風은 脾胃虛에 起因하여 病因 및 病理情況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驚風의 主된 證狀은 四證과 八候로 概括되는데 여기서 四證은 痰證, 熱證, 驚證, 風證의 네가지이며<sup>8)9)</sup> 八候는 搐 搦 掣 顫 反 引 竄 視의 여덟가지 證候<sup>10)11)12)13)14)15)</sup>를 가리킨다.

- 5) 秦昌遇: 幼科折衷, 서울, 醫聖堂, 1994, p.5
- 6)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390
- 7) 陳復正: 幼幼集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96
- 8) 東醫小兒科學: 前揭書, pp.95~104
- 9) 江育仁 主編: 中醫兒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22
- 10) 周定王·朱櫛 撰: 普濟方, 서울, 翰成社, 1981, p.350
- 11)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 서울, 醫聖堂, 1994, pp.5~6
- 12) 李槿: 原本編注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 원광대학교 원진학교실

\*\* 大韓醫療氣功學會

- 1) 趙廷俊: 及幼方, 서울, 麗江出版社, 1993, p.61
- 2) 東醫小兒科學, 서울, 麗江出版社, 1993, p.95
- 3) 上揭書, p.95
- 4)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65, p.361

驚風の 證候는 小兒의 疾病 中에서 가장 危急한 것 중의 하나로 洋方醫學에서는 救急處置 爲主로 治療하고 있지만 韓醫學에서 使用되는 救急法 및 病因病理에 根據한 藥物療法 또한 높은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驚風の 治療方法이 時代나 醫家에 따라 많은 差異點이 있으므로 臨床에서 適切한 治療法을 選擇하고 活用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筆者는 各 醫家들에 따른 驚風の 病因病理 및 治法을 比較·研究해 본 結果 急驚風の 病因病理 및 治療法에 대하여 몇가지 知見을 얻었으므로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Ⅱ. 本論

### 1. 驚風の 症狀

驚風の 症狀은 주로 四證과 八候로 概括된다. 症狀이 四證과 八候로 細分化된 것은 宋代 以後로 熱, 痰, 驚, 風의 네가지 病因病理에 따라 各 症을 區分하여 四證이라 하고, 搐搦의 症狀에 따라 八候로 區分하였다.

#### 1) 一般症狀

##### (1) 千金方<sup>16)</sup>

몸이 強直되고 활처럼 뒤로 퍼지며 시간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는 境遇를 瘧病이라

1989, pp.481~483

13) 龔信：古今醫鑒，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 pp.395~396

14) 吳謙等編：醫宗金鑑，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5, p.590

15) 江育仁主編：前揭書，p.122

16) 孫思邈：千金方，北京，華夏出版社，1993, p.63

한다.<sup>17)</sup>

##### (2) 小兒藥證直訣<sup>18)</sup>

큰 소리를 듣거나 크게 놀라서 抽搐이 發生되지만 조금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은 無陰의 症狀이다.<sup>19)</sup>

小兒의 急驚風은 큰 소리를 듣거나 놀라서 抽搐이 發生되고 抽搐이 오래되면 心에서 熱이 發生하므로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二便黃赤하며 甚하면 抽搐이 發生한다. 이것은 陽이 盛하고 陰이 虛하기 때문이다. 考察하건데 保嬰集에 이르기를 急驚風の 證候는 牙關緊急 壯熱涎湧 竄視反張 搐搦顫動 口中氣熱 頰赤脣紅 脈浮洪數 等으로 이는 肝經血虛하여 火動으로 風이 生한 것이라 하였다.<sup>20)</sup>

가령 傷風하여 抽搐이 發生한 境遇에는 口中氣熱 呵欠煩悶 手足動搖의 症이 나타난다.

만약 傷食 後 抽搐이 發生한 境遇에는 身溫 多眠 或吐 不思飲하는 症狀이 나타난다.

小兒가 막 태어나서 壯熱이 있고 托現하며 身體強直하고 手足에 抽搐이 있으며 눈을 똑바로 치켜 뜨는 것은 胎驚風이다.<sup>21)</sup>

##### (3) 太平聖惠方<sup>22)</sup>

17) 身強直 反張如弓 不時醒者 謂之瘧也.

18) 錢乙：小兒藥證直訣，台北，宇宙醫學出版社，民國51, pp.27~28

19) 因聞大聲惑 大驚而發搐 發過則如故 此無陰也.

20) 小兒急驚 因聞大聲或驚而發搐 搐止如故 此熱生於心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二便黃赤 甚則發搐 皆熱盛生風 陽盛而陰虛也. 按保嬰集云 急驚風之後 牙關緊急 壯熱涎湧 竄視反張 搐搦顫動 口中氣熱 頰赤脣紅 脈浮洪數者 此肝經血虛 火動生風.

21) 若傷風發搐 口中氣熱 呵欠煩悶 手足動搖 當以大青膏發散之. 若傷食後發搐 身溫多睡 惑吐不思飲者 宜先定搐搦 止用白餅子下之 用安神丸主之. 小兒初生壯熱吐呢 身體剛直 手足抽掣 目反直視 是胎驚風也.

그 症狀은 偏身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 筋脈抽掣 項背強直 牙關緊急 등이다.<sup>23)</sup>

(4) 河間六書<sup>24)</sup>

小兒驚風은 時間이 되면 抽搐하고 手足掣搐하니 險命散으로 吐하게 해야 한다.

身熱惡寒 戰慄驚惑은 모두 熱證에 속하니 少陰君火에 해당하고 갑자기 剛直하면서 支綆淚 裏急筋縮하는 것은 모두 風證에 屬하니 厥陰風木에 해당한다.<sup>25)</sup>

(5) 醫學綱目<sup>26)</sup>

急驚風은 熱이 있어서 風이 생기거나 또는 놀라서 發生되는 것이니 目上連劓 潮涎 搐搦하고 身體와 口中氣가 모두 熱하며 發作이 鎮靜되거나 자고 일어나면 예전처럼 낫는 것이 急驚風의 證이다.<sup>27)</sup>

(6) 普濟方<sup>28)</sup>

무릇 急驚風의 證候는 上竄, 反張, 搐搦, 口流痰涎, 壯熱을 모두 갖추고 있다. 或 左를 보거나 右를 보기도 하고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며 주먹을 쥔 때도 안으로 쥐기도하고 밖으로 쥐기도 한다 ... 몸을 떠는 것도 처음에는 搐搦이 모두 발작하지만 오래되면 搐은 생기지 않고 搦證만 發生된다.<sup>29)</sup>

(7) 醫學正傳<sup>30)</sup>

大抵 急驚의 證候는 非正常的인 소리를 듣거나 달리는 말이나 짐승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面靑口噤하고 聲嘶而厥하며, 조금 지나면 얼굴색이 예전처럼 돌아오나 오래도록 다시 발작하며, 身熱 面赤引飲 口鼻中氣熱 大小便黃赤色이고 잠들지 못하게 된다.<sup>31)</sup>

(8) 保嬰全書<sup>32)</sup>

婁全善이 또한 말하기를 急驚風은 木火土實에 屬하니 木이 實하면 抽搐하면서 힘이 있고 눈이 위를 향하면서 낮처럼 움직이고 자주 깜빡거리고, 土가 實하면 身熱面赤하고 吐瀉하지는 않으며 넘어져 자면서 눈을 감는다고 하였다.<sup>33)</sup>

(9) 增補萬病回春<sup>34)</sup>

急驚風의 症은 牙關緊急 壯熱涎潮 竄視反張 搐搦顫動하고 脣口와 眉眼이 서로 당기고 口中熱氣 煩赤脣紅 二便閉結 脈浮洪數緊한 것이다.<sup>35)</sup>

(10) 醫學入門<sup>36)</sup>

驚邪가 入心하면 面紅 臉赤 夜啼하게 되

裏有外. ... 身體顫動 初則搐搦俱作 久以搐不作只搦.

22) 王懷隱撰：太平聖惠方，翰成社，서울，1979，pp.2700~2702

23) 其候偏身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 筋脈抽掣 項背強直 牙關緊急 是也.

24) 劉河間：傷寒六書，서울，成輔社，1975，p.234

25) 小兒驚風潮搐 手足掣縮 用險命散吐之. 身熱惡寒 戰慄驚惑 皆屬熱證 爲少陰君火 暴剛直支綆淚 裏急筋縮也 蓋屬風證 爲厥陰風木.

26) 樓英：醫學綱目，北京，北京中醫藥出版社，1996，pp.822~833

27) 急驚乃有熱即生風 又或因驚而發則目上連劓 潮涎搐搦 身體與口中氣皆熱 及其發定或睡起即了了如故 此急驚證也.

28) 周定王·朱橚撰：前揭書，pp.349~351

29) 夫急驚風證候 上竄反張搐搦 口流痰涎 壯熱并有之. 其或視左視右者 有僵有仆. 拳握之有

30) 虞搏：前揭書，p.391

31) 若夫急驚之候 因聞非常之聲 或遇馬禽獸之號 以致面靑口噤 或聲嘶而厥 發過則容色如故 良久復作 其身熱 面赤引飲 口鼻中氣熱 大小便黃赤色 惺惺不睡.

32) 薛己：保嬰全書，台北，新文豐出版社，1978，pp.194~195

33) 婁全善 亦曰 急驚屬木火土實 木實則搐而有力及目上視動劓頻捷 土實則身熱面赤而不吐瀉 假睡合睛

34) 龔廷賢撰：增補萬病回春，서울，醫聖堂，1993，pp.389~391

35) 急驚風症 牙關緊急 壯熱涎潮 竄視反張 搐搦顫動 脣口眉眼牽引 口中熱氣 煩赤脣紅 二便閉結 脈浮洪數緊.

36) 李梴：前揭書，pp.481~483

고 入肝하면 面目이 다 靑하며 視線을 이상하게 하고 入脾하면 面色이 淡黃色으로 되며 嘔吐 不食 虛汗을 흘리며 多睡하게 되고 入肺하면 面色이 淡白色으로 되며 喘息 氣乏하게 되고 入腎하면 面黑色, 젓을 물어 뜯으며 이를 악물게 되는 것이다.<sup>37)</sup>

(11) 景岳全書<sup>38)</sup>

急驚의 證候는 壯熱痰壅 竄視反張 搐搦顫動 牙關緊急 口中氣熱 頰赤脣紅 飲冷便結 脈沈洪數 한데 이것은 肝邪風熱이니 陽盛陰虛의 證이다.<sup>39)</sup>

木의 邪氣가 土를 侮하게 되면 脾病이 되니 痰飲이 나타나고 吐瀉하며 木盛金衰하면 肺病으로 喘促, 短氣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木火가 上炎하면 心病이 되니 驚叫, 煩熱하게 되고 木火가 傷陰하면 腎病이니 水涸, 血燥, 乾渴, 汗不出, 搐, 瘳하게 된다. 이는 五臟驚風の 대강이다.<sup>40)</sup>

(12) 幼科折衷<sup>41)</sup>

아직 發作하기 전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면서 웃거나 울거나 하고 이로 물어 뜯고 젓을 물고 코나 앞이마에서 땀이 나고 呼吸이 가쁘고 痰鳴이 나며 문득 답답해하고 눈을 위로 치켜뜨고 飲食을 먹지 못하며 손발을 끌어당기니 이는 熱이 甚해서 그런 것으로 兼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數脈

이 나타나면 가히 分別할 수 있다.<sup>42)</sup>

(13) 聖濟總錄<sup>43)</sup>

論하여 말하기를 小兒急驚의 症狀는 身體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 筋脈牽掣 項背強直 目睛上視 牙關緊急한데 發動하는 것이 急하므로 急驚이라고 한다. <sup>44)</sup>

(14) 醫宗金鑑<sup>45)</sup>

그러나 證은 壯熱 煩急 面紅 脣赤 痰壅氣促 牙關噤急 二便秘澀한 症狀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大部分이다. 噤急한 것은 齒牙가 緊急하여 벌릴 수 없는 것이다. 二便秘澀한 것은 大便이 秘結하며 小便이 澀難한 것이다. 脈이 洪數한 것은 陽熱한 것을 나타낸다.<sup>46)</sup>

(15) 中醫兒科學

① 風寒型

乳少兒童에서 高熱無汗 神定不安 하는 症狀이 나타난다. 비교적 큰 兒童에게는 頭痛 怕冷 項背酸痛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계속해서 頸項強 四肢抽搐 神志不清 等の 症狀이 나타나게 되고, 苔薄白하거나 白膩하고 脈象은 浮數하다.

② 溫熱型

初起에 뚜렷한 感冒症狀이 있으니 發熱 咳嗽 惡風 頭痛 等の 症狀이 있으면서 神定

37) 驚邪 入心則面紅臉赤夜啼 入肝則面目俱靑眼竄 入脾則面色淡黃嘔吐不食虛汗多睡 入肺則面色淡白喘息氣乏 入腎則面黑嚙乳咬牙

38) 張介賓：景岳全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pp.907

39) 驚之候 壯熱痰壅 竄視反張 搐搦顫動 牙關緊急 口中氣熱 頰赤脣紅 飲冷便結 脈沈洪數 此肝邪風熱 陽盛陰虛指證也.

40) 木邪侮土則脾病 而爲痰 爲吐瀉，木盛金衰則肺病 而爲喘促 爲短氣，木火上炎則心病 而爲驚叫 爲煩熱，木火傷陰則腎病 而爲水涸 爲血燥 爲乾渴 爲汗不出 爲搐 爲瘳，此五臟驚風之大概也.

41) 秦昌遇編著：前揭書，p.5

42) 未發之時 夜臥不穩 睡中或笑或哭 齧齒齧乳 鼻額有汗 氣促痰鳴 忽泥悶絕 目直上視 口禁不開 手足搐掣 此熱甚而然 沈兼面紅脈數可辨.

43) 吳錫璜：聖濟總錄，서울，翰成社，1977，pp.518~519

44) 論曰小兒急驚之狀 身體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 筋脈牽掣 項背強直 目睛上視 牙關緊急 謂其發動掣急 故名急驚.

45) 吳謙等編：前揭書，p.590

46) 然證多暴發壯熱 煩急 面紅 脣赤 痰壅氣促 牙關噤急 二便秘澀. 噤急者 齒緊急不能開也. 二便秘澀者 大便秘結而小便澀難也. 脈洪數者 主陽熱也.

不安 口渴欲飲 等の 症狀을 同伴하고 이때 苔薄白 脈浮數하다. 迅速하게 神昏抽搐 煩躁譫妄 苔黃 舌質紅絳 芒刺 等の 症狀으로 變하게 되니 이는 厥陰으로 內陷하여 心包로 逆轉된 症狀이다. 때로는 面色蒼白 四肢 焮溫 脈細數 等の 內閉外脫한 症狀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食厥型

이 形態의 患兒는 대부분 肥滿型으로 食欲도 平素에 旺盛하다. 發病初期에 往往 嘔吐 納呆 腹痛 便閉 等の 症狀이 나타나며 繼續해서 發熱神昧하고 迅速히 昏迷驚厥 腹部飽滿 呼吸短促 苔黃膩 脈滑數한 症狀이 나타난다.

④ 驚恐型

이 형태의 患兒는 平素 비교적 弱하고 發作時에 面色乍靑乍赤하며 驚叫不安 頻頻驚惕 輕微發熱하고 苔는 如前하고 脈은 比較的 數하면서 一時性驚厥을 水盤한다.

2) 四證

(1) 東醫寶鑑

四證은 驚風痰熱이다. 肝은 風을 主管하고 脾는 痰을 主管하며 肺는 熱을 만들고 心은 熱을 나타나게 하는데 四證이 나타날 때에는 더 重한 것이 먼저 發生하게 된다.<sup>47)</sup>

(2) 東醫小兒科學<sup>48)</sup>

原因이 비록 다르나 發病시 暴急하고 突然 高熱이 나고 神志煩急 大便秘結 小便澀難 痰壅氣促 牙關緊急 搐搦掣顫 竄視反張 脈狀洪數 指紋靑紫한다. 臨床에서 驚風이 發作할 때 證候의 特徵에 따라 驚, 風, 痰, 熱의 四證으로 나눈다.

驚證은 神識不清하고 昏睡不省하고 譫語 驚叫 또는 恐懼不安한다.

風證은 牙關緊閉 口噤不開 또는 口角牽引 手足搐搦 頸項強直 角弓反張 身體顫動 眼目 竄視한다.

痰證은 大概 咳嗽氣促하고 痰涎壅盛하고 또는 滿口痰沫하고 喉間痰鳴하는 것이 마치 톱질하는 것 같다.

熱證은 大概 高熱眼紅 脣頰發赤 口中氣熱 喜飲冷 大便不解 小便黃混 手足抽搐, 神昏 譫語 脈狀洪數 舌質紅絳 苔色黃黑乾焦하다.

(3) 中醫兒科學<sup>49)</sup>

發病時의 特徵은 四證과 八候로 概括할 수 있다.

四證은 痰, 熱, 驚, 風의 네 가지 證을 말하는데 대부분 섞여서 出現하므로 確實하게 나누어 말하기는 곤란하다.

痰證 : 咳嗽氣促 痰涎壅盛 或滿口痰濁 喉中 痰鳴 聲如洩鋸聲 神志不清 或昏迷

熱證 : 高熱目赤 脣頰紅 煩渴飲冷 便秘溲赤 甚至神昏譫語

驚證 : 昏譫驚叫 或恐懼不安

風證 : 牙關緊閉 口角牽引 二目竄視 四肢抽搐 項背強直 甚則角弓反張

3) 八候

(1) 普濟方<sup>50)</sup>

四證 中에 八候가 發生된다. 八候는 첫째 搐, 둘째 搦, 셋째 掣, 넷째 顫, 다섯째 反, 여섯째 引, 일곱째 竄, 여덟째 視이다. 첫째 搐은 팔이 때때로 경련하면서 오무라드는 것이다. 둘째 搦은 十指를 폈다 오무리는 것이다. 搦이 그치지 않으면 握拳이 되는데 男子의 拇指를 보면 그 손가락을 오무리는 것이 바깥쪽인 것이 順證이고 안쪽으로 오

47) 四證者 驚風痰熱也. 其肝主風 其脾主痰 其肺作熱 其心發熱 四證相臨 重者先發.

48) 東醫小兒科學 : 前揭書, pp.95~104

49) 江育仁主編 : 前揭書, p.122

50) 周定王·朱櫛撰 : 前揭書, p.350

무리는 것은 逆證이다. 女子는 反對로 보면 된다. 셋째 掣는 肩膊이 痙攣하면서 끌어당겨지는 것으로 때로 온몸에 일어나기도 한다. 넷째 顫은 손이나 다리, 또는 머리나 몸의 四體가 顫動하는 것이다. 다섯째 反은 몸과 손이 뒤로 퍼지는 것이다. 여섯째 引은 손이 퍼진 활의 형상처럼 되는 것이다. 男子는 왼손이 퍼지고 오른 손이 구부러지는 것이 順證이고 오른 쪽이 퍼지고 왼쪽이 구부러지면 逆證이다. 女子는 반대로 본다. 일곱째 竄은 그 눈의 上竄靦高를 보는 것으로 男子는 上竄이 順證이고 下竄이 逆證이며 女子는 反對로 본다. 여덟째 視는 男兒의 눈이 기울어지는데 視線이 왼쪽이면 順證이고 오른 쪽이면 逆證이며 女子는 反對로 본다. 四證八候가 따로따로 順序대로 發生하게 된다.<sup>51)</sup>

(2) 幼科折衷<sup>52)</sup>

驚風에는 四證과 八候가 있다. 四證은 驚, 風, 痰, 熱이 이것이고, 八候는 搯, 搦, 掣, 顫, 反, 引, 竄, 視가 이것이다. 搯은 양손을 폼다 오무리는 것이고, 搦은 열 손가락을 벌였다 닫았다 하는 것이며, 掣는 서로 부딪치는 形勢이고, 顫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固定되지 않은 것이고, 反은 두 손을 뒤로 향해 안고 있는 것이고, 引은 팔을 활처럼 벌리고 있는 것이고, 竄은 눈을 화난 듯이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고, 視는 眼睛이 露出되어 活氣가 없는 것이다. 四證이 이미 갖추어졌으면 八候가 발생되니 四證이 없으면 어찌 八候의 證候가 있겠는가.<sup>53)</sup>

(3) 醫學入門<sup>54)</sup>

驚, 風, 痰, 熱의 四證이 輕한 境遇에는 四肢가 搯搦할 뿐이지만 重한 境遇는 牙關緊急하며 搖頭 竄視 口開 出舌하며 角弓反張 身體掣顫 手足搯搦 四肢倦攣하니 局方에서 이른바 八候라 부르는 것이다.<sup>55)</sup>

(4) 古今醫監<sup>56)</sup>

대저 小兒에 熱이 있는 境遇에 熱이 盛하면 痰이 發生되고, 痰이 盛하면 驚證이 생기며, 驚이 盛하면 搯搦이 發生되고, 搯搦이 盛하면 牙關緊急하면서 八候가 생긴다. 搯搦 掣 顫 反 引 竄 視가 이것이다. 搯은 양손을 폼다 오무리는 것이고, 搦은 열 손가락을 벌였다 닫았다 하는 것이며, 掣는 서로 부딪치는 形勢이고, 顫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고정되지 않은 것이고, 反은 몸이 뒤로 구부러지는 것이고, 引은 팔이 활처럼 퍼지는 것이고, 竄은 화난 듯이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視는 眼睛이 露出되어 活氣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八候이다.<sup>57)</sup>

51) 四證之中 而作八候. 八候者 一搯 二搦 三掣 四顫 五反 六引 七竄 八視. 一搯者 臂時搯縮 二搦者 十指開闔 搦之不已 則成握拳 男子看大拇指 其指握在外爲順, 在裏爲逆. 女子反看之. 三掣者 肩膊搯掣 或連身跳起 四顫者 或手或脚 或頭或身 四體顫動. 五反者 身手反張 六引者 以手有如挽弓狀. 男子左手直右曲爲順, 右直左曲爲逆. 女子反看之. 至所云七竄者 看其眼上竄靦高 男子上竄爲順 下竄爲逆. 女子反看之. 八視者 男子斜目視左爲順 視右爲逆. 女子反看之. 四證八候 次第隨生.

52) 秦昌遇編著: 前揭書, pp.5~6

53) 驚風有四證八候, 四證者 驚風痰熱 是已. 八候者 搯 搦 掣 顫 反 引 竄 視 是已. 搯者 兩手伸縮, 搦者 十指開合, 掣者 勢若相搏, 顫者 頭偏不定, 反者 兩手仰向後, 引者 臂若開弓, 竄者 目直視怒視, 視者 睛露不活. 四證已俱 八候生焉, 四證既無 八候安有.

54) 李梴: 前揭書, pp.481~483

55) 驚風痰熱四證 輕者 四肢搯搦而已 重者 牙關緊急 搖頭 竄視 張口出舌 角弓反張 身體掣顫 手足搯搦 四肢踈攣局方謂之八候

56) 龔信: 前揭書, pp.395~396

57) 夫小兒有熱 熱盛生痰 痰盛生驚 驚盛發搯 搯盛則牙關緊急而八候生焉. 搯搦掣顫反引竄視是也. 搯者 兩手伸縮 搦者 十指開合 掣者 勢如相撲 顫者 頭偏不正 反者 身仰向後 引者

(5) 醫宗金鑑<sup>58)</sup>

驚風八候는 搖 擗 掣 顛 反 引 竄 視를 이름하여 말한 것이니 肘臂伸縮을 搖이라 하고 十指開合이 擗狀이며 서로 다투는 것 같은 것을 掣라 이르고, 顛은 머리와 四肢가 動搖하는 것이다. 反은 몸을 펴고 머리를 뒤로 구부리는 것이요, 引은 양손을 활처럼 벌리는 것이며, 竄은 눈을 화난 것처럼 똑바로 뜨는 것이고, 視는 物件을 노려 보며 眼睛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內外와 左右로 順逆을 區分하나니 急慢驚風의 證候는 대개 비슷하다.<sup>59)</sup>

## 2. 驚風의 原因

驚風은 小兒 특유의 생리적 상태가 여러 誘因들에 의해 문란되어 병리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驚風의 原因은 소아의 생리적 특징과 유발원인의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1) 小兒生理의 特徵

(1) 河間六書<sup>60)</sup>

무릇 小兒가 六歲 以上이면 小兒라고 하고 十八歲 以下를 少年이라고 하는데 六歲 以下인 境遇에는 氣 經絡이 完全하지 못하므로 젖을 먹는 嬰兒가 病이 있으면 治療하기 어렵고 또 定해진 治療法도 없는 것이다.<sup>61)</sup>

臂若開弓 竄 目直似怒 視者 睛露不活 是謂八候也.

58) 吳謙等編：前揭書，p.590

59) 驚風八候搖擗掣 顛反引竄視之名 肘臂伸縮名爲搖 十指開合擗狀成 勢若相扑謂之掣 顛則頭肢動搖鈴 反張身仰頭向後 引狀兩手若開弓 竄則目直常似怒 視則睹物不轉睛. 內外左右分順逆 須識急慢證皆同.

60) 劉素素：前揭書，p.234

61) 夫小兒六歲之上爲小兒，十八歲已上爲少年，其六歲以下者 諸經不載 是以乳下嬰兒 有病難治

(2) 古今醫鑒<sup>62)</sup>

驚風이 처음 發作하는 것은 주로 小兒의 氣血이 怯弱하고 肌膚가 軟하고 얇으며 神氣가 未備하고 臟腑도 完全하지 못한 것에 緣由한다.<sup>63)</sup>

(3) 幼科折衷<sup>64)</sup>

大概 小兒는 純陽之體로 眞水가 아직 未旺하고 心火는 이미 炎上하여 肺金이 抑制를 받아서 木을 平하게 하지 못하므로 肝木은 恒常 有餘하고 脾土는 恒常 不足하게 된다.<sup>65)</sup>

(4) 醫學正傳<sup>66)</sup>

무릇 小兒의 八歲 以前을 純陽이라고 하니 대개 眞水가 아직 旺盛하지 않은데 心火는 이미 炎上하므로 肺經이 制御를 받아 肝木을 平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肝木이 恒常 有餘하고 脾土는 恒常 不足하게 된다.<sup>67)</sup>

(5) 明醫雜著<sup>68)</sup>

小兒의 病은 대개 脾土와 肝木의 두 經에 屬한다. 肝은 有餘의 症狀으로 有餘한 病은 重하고 急한 것 같으나 治療가 도리어 쉽고 效果를 보이는 것도 역시 빠르며, 脾는 不足한데 不足한 病은 가볍고 緩慢한 것 같으

無可定也.

62) 龔信 達美君 等 校注：古今醫鑒，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p.392

63) 其始也 多由小兒氣血怯弱 肌膚軟薄 神氣未備 臟腑未全.

64) 秦昌遇編著：前揭書，p.5

65) 蓋小兒系純陽之體 爲其眞水未旺 心火已炎 肺金受制而無以平木 故肝木常有餘而脾土常不足也.

66) 虞搏：前揭書，p.390

67) 夫小兒八歲以前曰純陽 蓋其眞水未旺心火已炎 故肺經受制而無以平木 故肝木常有餘而脾土常不足也.

68) 王綸：明醫雜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pp.156

나 治療가 도리어 어렵고 效果를 보는 것도 또한 느리다. 두 經이 病드는 것이 脾가 大部分이므로 藥을 사용하는 것도 이것을 分別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sup>69)</sup>

(6) 幼幼集成<sup>70)</sup>

大概 小兒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陰氣가 아직 不足하고 性稟이 純陽이어서 몸 안에서 쉽게 熱이 發生하고 熱이 盛하여서 風과 痰을 發生시킨다.<sup>71)</sup>

2) 驚風の 誘發要因

(1) 素問·奇病論篇<sup>72)</sup>

帝曰 人生而有病癲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謂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并居 故令子發爲癲疾也.

(2) 巢氏諸病源候論<sup>73)</sup>

小兒의 驚風은 血氣가 不和한 것 때문에 發生하니 熱이 안에서 實하면 心神이 定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驚風이 發生되고 甚하면 抽搐하며 變해서 癇證이 된다.<sup>74)</sup>

(3) 千金方<sup>75)</sup>

어렸을 때 癇疾이나 痙攣을 앓는 것은 모두 五臟의 氣運이 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한달 사십일 이상에서 한 살 때까지 癇

證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乳養을 잘못하여 血氣不足하고 風邪가 的中했기 때문이다.<sup>76)</sup>

(4) 太平聖惠方<sup>77)</sup>

무릇 小兒 急驚風은 氣血不和에 起因하니 원래 實熱이 있는데다 風邪가 틈을 타고 들어와 心絡을 侵犯한 所致이다. 心은 神이 居하는 곳으로 血脈을 主管하는데 만약 熱이 盛하면 血이 어지러워지고 血이 어지러워지면 氣가 血을 아우르게 되니 氣血이 서로 아우르고 또 風邪에 의해서 相搏하므로 놀라서 不安하게 되는 것이다.<sup>78)</sup>

(5) 小兒藥證直結<sup>79)</sup>

小兒의 急驚風은 큰 소리를 듣거나 놀라서 抽搐이 發生되고 抽搐이 오래되면 心에서 熱이 發生하므로 身熱面赤引飲 口中肌熱 二便黃赤하며 甚하면 抽搐이 發生한다. 이것은 陽盛하고 陰虛한 것이다.<sup>80)</sup>

(6) 幼科發揮<sup>81)</sup>

外的인 要因으로 驚風이 發生할 수 있으니 가령 感冒風寒溫濕之氣로 인해서 發熱하는 경우이다 ... 內的인 要因으로 驚風이 發生할 수 있으니 가령 傷飲食으로 發熱하는 境遇이다 ... 不內外因인 경우는 驚恐 혹은 客忤中惡으로 發生한 경우이다. 대개 心藏 神한테 驚邪가 神을 損傷시키고, 腎藏志與

69) 小兒病大率屬脾土 肝木二經. 肝只是有餘 有餘之病似重急 而爲治卻易 見效亦速, 脾只是不足 不足之病似輕緩 而爲治卻難 見效亦遲. 二經爲病 惟脾居多 用藥最要分別.

70) 陳復正: 前揭書, p.96

71) 蓋小兒初生 陰氣未足 性稟純陽 身內易致生熱 熱盛則生風生痰.

72) 楊維傑編: 前揭書, p.361

73)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pp.8~9,

74) 小兒驚者 由血氣不和 熱實在內 心神不定 所以發驚 甚者掣搐 變成肝

75) 孫思邈: 前揭書, p.63

76) 論曰 少小所以有癇病急痙病者 皆有臟氣不平故也 ... 其一月四十日 以上至期歲而癇者 亦有乳養失理 血氣不和 風邪所中也.

77) 王懷隱: 前揭書, pp.2700~2702

78) 夫小兒急驚風者 由氣血不和 夙有實熱 爲風邪所乘 干於心絡之所致也. 心者 神之所舍 主於血脈 若熱盛則血亂 血亂則 氣并於血 氣血相并 又被風邪所搏 故驚而不安也.

79) 錢乙: 前揭書, pp.27~28

80) 小兒急驚 因聞大聲或驚而發搐 搐之如故 此熱生於心 身熱面赤引飲口中氣熱二便黃赤甚則發搐 皆熱盛生風 陽盛而陰虛也.

81) 萬密齋: 兒科卷(幼科發揮), 長沙市,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5, pp.65~71



精한데 恐邪가 神을 損傷시킨 것이다.<sup>82)</sup>

(7) 幼科折衷<sup>83)</sup>

內經에 이르기를 諸風掉眩 皆屬肝木이라 하니 ... 父母되는 者가 保養을 喪失하거나 아이를 안고 바람을 맞거나 뜨거운 곳에 가까이 하거나 매운 飲食을 많이 먹거나 옷이 너무 두껍거나 해서 邪熱이 鬱蒸되어 心에 쌓이고 肝에 傳해진데다 다시 사람이나 물건에 의해서 놀랐기 때문이다.<sup>84)</sup>

(8) 奇效良方<sup>85)</sup>

小兒가 病드는(驚風이 發生하는) 原因은 驚, 風, 寒, 暑, 痰, 食으로 各各 屬하는 바가 있다.<sup>86)</sup>

(9) 醫學正傳<sup>87)</sup>

父母되는 者가 保養을 잃거나 衣服의 寒暄이 調和롭지 못하여 外邪가 侵襲하거나 飲食의 飢飽가 不適切하여 中氣를 損傷하는데 이르러서 急慢驚風의 證候가 나타나게 된다.<sup>88)</sup>

(10) 醫學入門<sup>89)</sup>

驚積으로 驚風이 되는 境遇가 있으니 이것은 놀란 것이 오래되어서 생긴 것이다. 그 症狀이 腋汗 喘息 煩渴 潮熱往來 頭熱하며 잘 때에 배 안에서 무슨 물체가 뛰거나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泄瀉를 하되 마치 백지나 두사같은 것을 瀉下한다 ... 飲食에 內傷하여 막혀서 發熱하거나 或 食後에 놀라서 생긴 것을 傷食挾驚이라 하는데 身熱 溫肚하며 或 吐하고 不思飲食하며 大便이 酸臭하는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 外邪에 感觸되었는데 驚과 虛로 因하여 風邪가 心肝二經으로 타고 들어가거나 或 體內에 積熱이 있는데 體外가 또 感風한 것을 다 傷風挾驚이라 부르는데 精神困弱 昏迷 頭疼 口中氣가 거칠면서 뜨거운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sup>90)</sup>

(11) 及幼方<sup>91)</sup>

驚積이란 놀란 지 오래되어 積이 된 것인데 그 症狀은 이마에 땀이 나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渴症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배가 뜨겁고 잠든 때에 배속에서 뛰노는 물건이 아리며 흰 곱똥이나 콩 또는 모래알 같은 똥을 누는데 이것이 驚積이다 ... 傷食挾驚은 짓이나 밥에 滯하여 熱이 나거나 또는 밥 먹은 뒤에 놀라서 發作하는 것인데 몸이 熱하고 배가 뜨겁고 혹 嘔逆이 나며 吐하고 먹지 못하며 大便에서 신내가 난다 ... 傷風挾驚은 속에 熱이 싸여 있고 밖으로 바람에 感觸되어 發作하는 것인데 몸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며 숨소리가 높고 疲困하며 昏迷한 것이다.

(12) 幼幼集成<sup>92)</sup>

무릇 小兒의 膜理는 緻密하지 못하므로

82) 有外因者 如感冒風寒溫濕之氣而發熱者 ... 有內因者 如傷飲食發熱者 ... 有不內外因者 如有驚恐或客忤中惡得之. 蓋心臟神 驚有傷神 腎藏志與精 恐有傷腎.  
83) 秦昌遇編著: 前揭書, p.5  
84) 內經曰, 諸風掉眩 皆屬肝木 ... 爲父母者 或失于保養 抱子當風 近于熱地 或辛辣多食 衣裳過厚 邪熱鬱蒸 積于心 傳于肝 再受人物驚觸.  
85) 方賢: 奇效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p.1457~1458  
86) 有若小兒授病之源 卽驚風寒暑痰食 各有由屬.  
87) 虞搏: 前揭書, p.390  
88) 爲父母者 而有失于保養 其或衣服寒暄不調 以致外邪侵襲 或飲食之飢飽失節 以致中氣損傷 是故急慢驚風之候作矣.  
89) 李梴: 前揭書, pp.481~483

90) 又有驚積者 受驚 日久而積盛之也 其證 額汗 喘息煩渴潮熱往來肚熱 睡中 覺腹內有物跳動 瀉下如白脂豆砂 是也 ... 內傷飲食 壅熱 或因食後遇驚 謂之傷食挾驚 身熱溫肚或吐不思食 大便酸臭 ... 外感 因驚虛 風邪 乘入心肝二經 或內有積熱 外又感風 俱謂之傷風挾驚 神因昏憤 頭疼口中氣齷而熱  
91) 趙廷俊著: 前揭書, pp.61~79  
92) 陳復正: 前揭書, p.96

寒邪에 쉽게 感觸된다. 寒邪가 사람에게 侵入하면 반드시 먼저 太陽經으로 들어오는데 太陽의 脈은 目內眥에서 始作하여 額으로 올라가 顛에서 交叉하며 別途로 項으로 내려와 脊椎를 끼고 腰中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病이 들면 筋脈이 牽強하고 따라서 抽掣搦하여 통하지 않는 症狀이 때때로 나타난다.<sup>93)</sup>

### (13) 醫宗金鑑<sup>94)</sup>

急驚風이 하나의 證이지만 눈으로 異常한 物件을 보거나 귀로 異常한 소리를 들어서 神散氣亂해져 생기기도 하고, 心肝火盛한대 밖으로 風寒邪가 鬱閉되어 잘 통하지 못해서 생기기도 하며, 痰盛熱極하여 안에서 風이 動해서 생기기도 한다.<sup>95)</sup>

### (14) 中醫兒科學<sup>96)</sup>

- ① 外感風寒：風寒之邪 侵襲肌表 初期雖有 挾風挾寒之別 但總因邪鬱肌表 而致化熱化火. 故初爲外感風寒 繼則肝風內動.
- ② 感染溫邪：溫邪最易化熱化火, 感染以後 往往導致內陷厥陰 逆轉心包
- ③ 乳食積滯：乳食不絕 鬱結腸胃 化熱灼津 血不營筋 導致肝風內動 俗稱‘食厥症’.
- ④ 暴受驚恐：如乍聞異聲 或不慎跌仆等 因突然受到外來的刺激 而致神志不寧 精神失守 出現一時性的驚厥.

### (15) 中醫兒科學<sup>97)</sup>

急驚風病因 有外感時邪 暴受驚恐 內蘊痰

熱等三種因素. 由于急驚風多見于外感熱病 所以外感時邪 又爲其主要因素 其中又以風邪 暑邪及疫癘之邪爲甚.

### ① 感受時邪

ㄱ. 感受風邪：當冬春之交 寒暖不一 氣候驟變 小兒肌膚薄弱 腠理不密 衛外功能不固 而且寒暖不能自調 因此機體不能適應外界氣候積變化 極易感受風邪 由表入裏 由衛轉氣 鬱而化熱化火 火甚生痰 熱極生風 故病之初起 先有外感表證 繼則引動肝風 或逆轉心包 可見發熱頭痛項強神昏抽風等證.

ㄴ. 感受暑邪：當夏秋之季 暑氣炎炎 酷熱薰蒸. 小兒元氣薄弱 眞陰不足 難耐炎暑蒸逼 既易感受暑熱 又繹傷氣耗陰. 暑爲陽邪 化火最速 侵犯機體 轉變急驟 暑喜當心 極易逆轉心包 內陷厥陰 引動肝風 出現高熱 昏迷抽搦等症.

ㄷ. 感受疫癘之邪：時邪之中 以疫癘之邪最凶. 感之則起病更爲暴烈 因爲疫邪暴烈傳染性極強, 化熱化火最爲迅速. 起病即可突然導致實熱內閉 激動肝風則抽搦 閉塞清竅則神昏 甚至引起外脫.

### ② 痰熱積滯

小兒脾常不足 如果飲食不節 或暴飲暴食 或偏嗜生冷酸甘或雜物難投 食進不潔之品 皆能損傷脾胃. 素問 痺論云：飲食自倍 腸胃乃傷 以致宿食積滯 鬱結中焦 脾胃不能運化 則痰濕內聚 壅塞不消 痹阻氣機 則氣機不利 鬱而生熱 久而化火 肝失疏泄 一時痰濕肝火交壅 上蒙心包 引動肝風 便可出現嘔吐腹脹腹痛便閉 驚厥 或高熱嘔吐便溲泄利驚厥等證

### ③ 暴受驚恐

小兒神氣怯弱 元氣未充 不能耐受外界不良因素積強烈刺激 如大驚卒恐 乍聞異聲 乍見異物 或不慎跌仆 失足落水等原因. 暴受驚恐 驚則氣亂 驚則傷神 則神不守舍. 恐則氣下

93) 夫小兒腠理不密 更易感冒寒邪. 寒邪中人 必先入太陽經. 太陽之脈 起於目內眥 上額交顛 還出別下項 夾脊抵腰中, 是以病則筋脈牽強 遂有抽掣搦種種不通名目.

94) 吳謙等編：前揭書, pp.589~590

95) 急驚風一證 有因目觸異物 耳聞異聲 神散氣亂而生者, 有因心肝火盛 外爲風寒鬱閉 不得宣通而生者, 有因痰盛熱極而內動風者.

96) 上海中醫學院編：中醫兒科學(新編中醫學教材),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145~146

97) 江育仁主編：前揭書, pp.121~136

恐則傷腎 腎失藏志 以致氣機逆亂 傷神失志 則神志不寧 驚惕不安. 或致痰涎壅盛 蒙蔽清竅. 驚痰入絡 引動肝風 則驚搐陡起 神志昏亂 成爲驚恐瘈瘲證候. 誠如宋·錢乙 在《小兒藥證直訣·急驚》云“因聞大聲或大驚而發搐”

### 3. 驚風의 病理

#### (1) 千金方<sup>98)</sup>

어렸을 때 痲疾이나 瘈攣을 앓는 것은 모두 五臟의 氣運이 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99)</sup>

#### (2) 保嬰全書<sup>100)</sup>

대개 急驚은 陽證으로 모두 腑가 病든 것이며 實證에 屬하니 少陽相火가 旺盛한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熱이 있으면 風이 發生되고 風은 痰을 發生시키며 痰熱이 心膈間에 侵入하면 風火가 相搏하므로 抽搐이 發動하니 經에서 이른바 木太過로 掉眩癲疾이 發生된다는 것이 이것이다.<sup>101)</sup>

#### (3) 聖濟總錄<sup>102)</sup>

이는 心絡에 邪氣를 받은 所致이다. 대개 心은 神을 藏하고 血을 主하는데 小兒는 血氣가 不和하고 원래 實熱이 있으므로 風邪가 侵入하면 熱이 盛하여져 血이 어지러워진다. 血氣가 相并하면 神舍(心)가 不安해져서 갑자기 驚風이 發하게 되니 古人이 陽痲이라고 이른 것이 이것이다.<sup>103)</sup>

#### (4) 幼科折衷<sup>104)</sup>

大概 心에는 熱이 있고 肝에는 風이 있다. 風은 動함을 主管하는데 火가 風을 얻으면 煙氣가 일어나니 二陽이 相鼓하여 風火가 相搏하게 된다. 肝은 魂을 貯藏하고 心은 神을 貯藏하는데 熱이 있으면 神昏이 쉽게 일어나므로 驚風이 發生된다. 心은 神을 主管하며 홀로 邪氣에 感觸되지 않는데 驚을 만나면 發熱하고 熱이 極하면 風을 發生시키므로 抽搐이 發生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急驚이라고 한다.<sup>105)</sup>

#### (5) 小兒藥證直訣<sup>106)</sup>

小兒急驚風은 큰 소리를 듣거나 혹은 놀라서 抽搐이 생긴 것인데 抽搐이 그치면 예전과 같아진다. 이것은 心에서 熱이 發生한 것으로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二便黃赤 등의 證狀이 나타나고, 甚하면 抽搐이 發生되는데 모두 熱이 盛하여 風이 생긴 陽盛陰虛의 證狀이다.

《保嬰集》에 이르기를 急驚風의 증후는 牙關緊急 壯熱涎湧 竄視反張 搐搦顫動 口中氣熱 頰赤脣紅 脈浮洪數 등인데 이는 肝經 血虛로 火動하여 生風한 것이다. 대개 風이 生하면 陰血이 더욱 홀어지며 陰火는 더욱 熾盛해지고 火가 動하면 肺金은 더욱 虛해지고 肝木은 더욱 旺盛해지니 마땅히 肝血을 滋養하고 脾氣를 길러야만 한다.<sup>107)</sup>

氣不和 宿有實熱 若爲風邪所乘則熱盛血難 血氣相并 則神舍不安 故卒然而驚 古人所謂陽痲是也.

98) 孫思邈 : 前揭書, p.63

99) 論曰 少小所以有痲病及瘈病者 皆有臟氣不平故也.

100) 薛己 : 前揭書, pp.193~194

101) 蓋急驚者 陽症也 俱腑受病而屬實 乃少陽相火旺. 經曰 熱則生風 風生痰 痰熱客於心膈間 則風火相搏 故抽搐發動 經所謂木太過 曰發生其動掉眩癲疾是也.

102) 吳錫璜 : 前揭書, pp.518~519

103) 此因心絡受邪所致. 蓋心藏神而主血 小兒血

104) 秦昌遇編著 : 前揭書, p.6

105) 蓋心有熱而肝有風 風主乎動 火得風 則烟焰起 二陽相鼓 風火相搏 肝藏魂 心藏神 因熱則神昏易動 故發驚也. 心主乎神 獨不受觸 遇有驚則發熱 熱極生風 故能成搐 名曰 急驚

106) 錢乙 : 前揭書, pp.27~28

107) 小兒急驚 因聞大聲或驚而發搐 搐止如故 此熱生於心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二便黃赤 甚則發搐 皆熱盛生風 陽盛而陰虛也. 按保嬰

(6) 東垣十書<sup>108)</sup>

風木이 旺盛하면 반드시 脾胃를 瀉할 것이니 먼저 土를 實하게 한 후에 木을 瀉해야 한다. 涼驚丸 中の 丁香은 辛熱하여 火를 도와주니 火가 旺盛해지면 土가 더욱 虛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青橘皮는 肺金을 瀉하고 丁香은 辛熱하여 肺大腸을 크게 瀉하니 脾가 實해지려면 마땅히 子를 瀉해야 하지만 지금 脾胃가 虛損한데 도리어 子를 瀉하고 火를 도우면 그 土를 거듭 虛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風木이 旺盛한 症狀은 右關脈이 洪大하고 掌中熱하며 腹皮熱하니 어찌 火를 돕고 金을 사하겠는가? 가령 寒水가 脾土를 乘하여 嘔吐腹痛하고 瀉利靑白하는데는 益黃散이 聖藥이지만, 지금 같은 境遇에는 黃芪湯으로 먼저 瀉火補金하고 土를 大補하는 것이 神妙한 治法이 되는 것이다.

(7) 明醫雜著<sup>109)</sup>

急驚證은 有餘한 證으로 肝木心火의 陽邪가 太旺한 것이니 ... 五臟은 모두 陰陽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肝氣는 陽이요 火이고 肝血은 陰이고 水이다. 肝氣가 旺盛하면 肝血은 衰하게 되고 火가 妄動하게 되면 水가 煎沸되어 便安하지 못하게 된다. 陽이 旺盛하고 陰이 消盡되면 風火가 相搏하고 陰血이 走散하니 그 기세가 病에 이르게 된다 ... 急驚風은 비록 肝心에 屬하지만 木火가 旺盛하면 肺金이 虧損되어 木을 平하게 하

集云 急驚風之後 牙關緊急 壯熱涎湧 竄視反張 搐搦顛動 口中氣熱 頰赤脣紅 脈浮洪數者 此肝經血虛 火動生風. 蓋風生則陰血愈散 陰火愈熾 火動則肺金愈虧 肝木愈盛 宜滋肝血 養脾氣.

108) 李杲：東垣十書·蘭室秘藏，오주출판사，民國73，台北，pp.241~244

109) 王綸：前揭書，p.157

지 못하므로 土를 瀉하지 못하므로 土가 損傷되므로 마땅히 脾를 길러야 한다.<sup>110)</sup>

小兒驚搐의 證狀에는 반드시 痰證이 나타난다. 驚으로 인해서 痰이 모이고 痰으로 인해서 驚이 發生되니 古人은 驚風을 治療하는 處方 中에 祛痰하는 藥物을 兼해서 반드시 그 痰을 먼저 治療한 然後에 瀉火清神시켰다.<sup>111)</sup>

(8) 醫學入門<sup>112)</sup>

小兒는 아직 元氣가 充實하지 못하고 精神作用이 아직 定立되지 않아서 혹 낮은 사람이나 異常한 物體를 보거나 或 非正常的인 큰 소리나 奇物의 소리를 듣게 되면 놀라서 이것이 心の 包絡으로 侵入하여 火가 타오르면 火의 居處가 비게 되어 그 곳에 痰이 모이게 되고 痰生熱하고 熱生風하므로 心肝脾의 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心內에 積熱이 있는데 驚惕하면 肝內에 生風하게 되어 抽搐이 발생되고 痰涎이 壅盛해지며 風과 熱이 并作하므로 症狀이 暴烈하며 緊急하게 되니 心肝病이다. 대저 心主熱하고 脾主痰하고 肝主風하여 서로 聯關되어 發病하게 되니 이것을 驚風痰熱이라 불러도 좋고 또는 驚熱風痰이라 불러도 역시 좋다.<sup>113)</sup>

110) 急驚是有餘之症 屬肝木心火 陽邪太旺 ... 五臟俱有陰陽 如肝氣爲陽 爲火 肝血爲陰 爲水. 肝氣旺則肝之血衰矣, 火妄動則水被煎沸 不寧矣. 陽旺陰消 風火相搏 陰血走散 勢所必至也 ... 急驚雖屬肝心, 然木火旺則肺金受虧不能平木 木來剋土 斯損矣 故亦宜養脾.

111) 小兒驚搐之症 必有痰. 或因驚而痰聚 或因痰而致驚 古人治驚方中兼痰藥 必須先治其痰 然後瀉火清神.

112) 李梴：新校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0，pp.323~324

113) 小兒 元氣未充 神畜未定 或見生人異物 或聞厲聲響器 驚入心之胞絡 火炎 舍空而聚痰 痰生熱 熱生風 心肝病也 又有心內積熱而驚惕 肝內生風而發搐 痰涎 壅盛 風熱併作

(9) 醫學正傳<sup>114)</sup>

(驚風은) 대개 熱이 甚하면 痰이 생기고 痰이 盛하면 風을 생기게 하는데 이때 驚邪를 만나게 되면 發作하게 된다.<sup>115)</sup>

(10) 醫宗金鑑<sup>116)</sup>

心은 神을 간직하고 있으니 心病은 주로 驚이 되고 肝은 木에 屬하니 肝病은 주로 風이 된다. 무릇 小兒가 心熱肝盛한대 한번 驚邪에 感觸되거나 風邪에 感受되면 風火가 相搏하여 반드시 急驚風의 證候가 나타난다.<sup>117)</sup>

### 4. 急驚風의 치법

驚風은 急證危證일 때는 通關急救法을 使用하여 神氣昏愼를 막아야 하고 急證이 풀리면 原因을 除去하는 本治法을 使用한다.

(1) 醫學綱目<sup>118)</sup>

考察하건대 外物에 놀란 境遇는 元氣가 本來 病들지 않았으므로 黃連安神丸 같은 苦藥으로 治療하고, 驚風이 發生하는 것이 外物에 놀란 경우가 아니면 元氣가 스스로 病든 것이니 寒水石 같은 甘寒藥으로 治療해야 한다 ... 위 急驚證은 木火土實에 屬하는데 ... 木實하면 身熱面赤하고 土實하면 吐瀉하지 않으면서 자면서 눈을 감고 있으니 治法은 涼瀉하는 것이 合當하다.<sup>119)</sup>

所以 暴烈緊急 心肝病也 蓋心主熱 脾主痰 肝主風 相因而發 謂之驚風痰熱 可也 謂之驚熱風痰 亦可也

114) 虞搏：前揭書, p.391  
115) 蓋熱甚則生痰 痰盛則生風 偶因驚而發耳.  
116) 吳謙等編：前揭書, pp.589~590  
117) 心藏神 心病故主驚也, 肝屬木 肝病故主風也. 凡小兒心熱肝盛 一觸驚受風 則風火相搏 必作急驚之證也.  
118) 樓英：前揭書, pp.822~834  
119) 按外物驚者 元氣本不病 故治以黃連安神之苦藥, 其動驚者 不因外物驚 元氣自有病 故治以寒水石安神之甘寒也 ... 上急驚症 屬木火土

(2) 普濟方<sup>120)</sup>

急驚風에 藥을 使用하려면 먼저 截風止搐시키는 藥을 服用시킨 다음에 下熱하는 藥을 投與한다. 熱이 除去되면 風도 없어지고 風이 흠어지면 抽搐도 하지 않게 된다 ... 급경을 갑자기 얻어서 처음 발작할 때 潮熱 目直視 牙關緊急 手足搐搦 面紅盛 頭額偏身汗出 口中熱氣 大小便黃赤하고 脈이 浮數하면 마땅히 通關法을 使用한다.<sup>121)</sup>

(3) 醫學正傳<sup>122)</sup>

무릇 急驚風은 肝木의 風邪가 有餘한 證狀에 屬하니 治療는 마땅히 清涼苦寒하여 氣를 瀉하는 藥物을 使用한다.<sup>123)</sup>

(4) 明醫雜著<sup>124)</sup>

急驚症은 有餘한 症으로 肝木心火의 陽邪가 太旺한 것이니 마땅히 바로 瀉下시키는 治療法을 使用하는데 降心化痰이 이것이다. 五臟은 모두 陰陽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肝氣는 陽이요 火이고 肝血은 陰이고 水이다. 肝氣가 旺盛하면 肝血은 衰하게 되고 火가 妄動하게 되면 水가 煎沸되어 便安하지 못하게 된다. 陽이 旺盛하고 陰이 消盡되면 風火가 相搏하고 陰血이 走散하니 그 氣勢가 病에 이르게 되므로 또한 마땅히 養血시켜야 한다. 急驚風은 비록 肝心에 屬하지만 木火가 旺盛하면 肺金이 虧損되어 木을 平하게 하지 못하고 土를 剋하지 못하므로 土

實也 ... 木實則身熱面赤 土實則 不吐瀉 睡合睛. 故治法合涼瀉.

120) 周定王·朱橚撰：前揭書, p.350~351  
121) 急驚用藥. 先與服截風止搐 次與下熱 熱去則無風 風散則不搐 ... 急驚乃卒然得之 初發潮熱 目直視 牙關緊急 手足搐搦 面紅盛 頭額偏身汗出 口中熱氣 大小便黃赤 其脈浮數 宜用通關.  
122) 虞搏：前揭書, pp.390~391  
123) 夫惟急驚屬肝木風邪有餘之證 治宜清涼苦寒瀉氣之藥.  
124) 王綸：前揭書, pp.157~161

가 損傷되기 때문에 마땅히 脾를 길러야 한다. 하물며 驚을 치료하는 藥들이 대개 祛風 化痰 瀉火시키는 峻厲한 藥이거나 龍腦 麝香같은 辛散한 藥物이므로 쉽게 陰血을 消盡시키고 脾胃를 損傷시키기 때문에 有餘한 急驚風の 證狀을 治療하려면 먼저 모름지기 降火下痰시키는 藥을 한두번 服用시킨 다음에 養血安神시키는 藥을 加해줘야 한다. 만약 食慾이 줄어들거나 大便이 溇薄하거나 吐瀉하면 마땅히 補脾胃하는 藥을 兼해서 使用한다. 만약 脾胃가 원래 虛하면 마땅히 바로 瀉해주는 藥 中에 補脾藥을 加해야 한다.<sup>125)</sup>

小兒驚搐의 證狀에는 반드시 痰證이 나타난다. 驚으로 인해서 痰이 모이고 痰으로 인해서 驚이 發生되니 古人은 驚風을 治療하는 處方 中에 祛痰하는 藥物을 兼해서 반드시 그 痰을 먼저 治療한 然後에 瀉火清神시켰다. 만약 痰이 胸膈에 壅塞되어 除去되지 않으면 瀉火清神시키는 藥이 조금도 그 效力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二陳湯에 竹瀝을 加하고 薑汁을 조금 넣은 處方이 가장 穩當하다.<sup>126)</sup>

또한 類驚이 많으니 모름지기 傷積으로 인한 腹痛 胸滿 嘔吐 惡食의 證狀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證狀이 가벼우면 消滯化痰시키고 證狀이 무거우면 探吐滯積시킨 후 調理시킨다. 또한 感冒로 인해서 吐瀉하고 發熱하면 氣血虛하여 熱에게 逼迫받아서 비록 驚證을 보이긴 하지만 經藥을 服用하면 안되니 단지 吐瀉感冒를 調治하면 氣가 스스로 安定되고 熱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驚風도 저절로 除去된다.<sup>127)</sup>

考察하건대 驚風の 證狀이 만약 心肝 二經絡에 風熱이 熾盛한 것에 起因한 것이면 두눈이 낮처럼 이어지고 四肢가 抽搐하니 마땅히 治肝清心시켜야 한다. 만약 心經의 蘊熱로 叫呼하면서 戰慄하면 마땅히 清熱安神시켜야 한다. 만약 肺가 風邪에 感觸되어 氣急喘促하면 治療理肺시킨다. 만약 飲食停滯로 嘔吐困睡하면 마땅히 消導健脾시킨다. 만약 脾肺虛弱하고 風痰이 壅盛하여 驚風이 發生되면 단지 補中益氣를 爲主로 해야 한다. 만약 祛風治療理氣之劑를 使用하는 것을 固執하면 氣가 흩어지고 陰液도 消耗되어 위태로움을 재촉하게 된다.<sup>128)</sup>

(5) 保嬰全書<sup>129)</sup>

婁全善이 또한 말하기를 急驚은 木火土實

藥 無少施其功也. 二陳湯加竹瀝 入少薑汁最穩.

127) 亦多類驚者, 便須審察 有無傷積腹痛 胸滿嘔吐 惡食? 輕則消滯化痰 重則探吐滯積 以後調之. 又有因感冒 吐瀉而發熱 氣血虛爲熱所迫 雖見驚症 不可卽服驚藥 但調治吐瀉感冒 則氣自定 熱自退 而驚自除矣.

128) 愚按 前症 若因心肝二經 風熱熾盛 兩目連劄 四肢抽搐 宜治肝清心. 若因心經蘊熱 叫呼戰慄 宜清熱安神. 若因肺感風邪 氣急喘促 宜治療理肺. 若因飲食停滯 嘔吐困睡 宜消導健脾. 若因脾肺虛弱而風痰壅盛 以致前症 但宜補中益氣爲主. 若執用祛風 治痰 理氣之劑 則氣散陰消而促其危矣.

129) 薛己: 前揭書, pp.193~194

125) 急驚是有餘之症 屬肝木心火 陽邪太旺 宜直瀉之 降心化痰是也. 五臟俱有陰陽 如肝氣爲陽 爲火 肝血爲陰 爲水. 肝氣旺則肝之血衰矣, 火妄動則水被煎沸 不寧矣. 陽旺陰消 風火相搏 陰血走散 勢所必至也 故亦宜養血. 急驚雖屬肝心, 然木火旺則肺金受虧不能平木 木來剋土 斯損矣 故亦宜養脾. 況治驚諸藥 大率祛風化痰 瀉火 峻厲 及腦麝辛散之味 易於消陰血 損脾胃者 故治有餘急驚之症 先須降火下痰 一二服後 加養血安神之藥. 若飲食少 大便溇 或吐瀉 則 當兼補脾胃. 若脾胃原虛 當於直瀉藥中加補脾藥. 若屢作屢服利驚驅逐之藥 便宜認作脾虛血散 治驚藥內加養血補脾藥 不可用溫熱丁香等藥 恐助胃火 宜參朮芍藥等以補脾中氣血 麥門冬 黃連 以清金制木.

126) 小兒驚搐之症 必有痰. 或因驚而痰聚 或因痰而致驚 古人治驚方中兼痰藥 必須先治其痰 然後瀉火清神. 若痰壅塞胸膈不去 則瀉火清神之

에 屬하는데 ... 治法은 마땅히 涼法 瀉法을 使用해야 한다. 놀라서 發生하는 境遇에는 牙關緊急 壯熱涎潮 竄視反張 搐搦顫動하고 脣口와 眉眼이 서로 끌어당기며 口中熱氣 頰赤脣紅하며 便秘結하고 脈浮洪數緊하는 등의 症狀이 나타나니 이것은 안에는 實熱이 있고 밖으로 風邪를 낀 것으로 마땅히 截風定搐의 治法을 使用한다. 만약 痰熱이 尙作하면 조금 瀉下시키고, 痰熱이 이미 泄下되었으면 급히 胃氣를 調養하는 것이 마땅하다. 抽搐이 安定되고 痰熱이 물러나면 마땅히 脾氣를 調補해야 한다.<sup>130)</sup>

東垣이 말하기를 ... 大概 急驚은 風木이 旺盛한 것이다. 風木은 肝에 屬하는데 盛하면 반드시 傳하여 脾를 瀆하므로 肝을 治療하려면 마땅히 먼저 脾를 實하게 한 후에 風木을 瀉해야 한다.<sup>131)</sup>

大抵 이 證은 肝膽經의 血虛에 屬하니 風火가 相搏하여 善行數變하는 境遇가 많다. 만약 肝血을 기르지 않거나 脾氣를 補하지 않고 순전히 祛風化痰하는 藥만을 使用한다면 脾는 더욱 虛해지고 血도 더욱 損傷되어 邪氣가 계속 머무르게 되므로 반드시 慢驚風으로 傳變된다.<sup>132)</sup>

(6) 增補萬病回春<sup>133)</sup>

이 證은 안에는 實熱이 있으면서 밖으로

風邪를 낀 것이니 마땅히 截風定搐시켜야 한다. 만약 痰熱이 서로 일어났으면 조금 瀉下시키고, 痰熱이 이미 泄下되었으면 급히 保養胃氣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抽搐이 鎮靜되고 痰熱이 조금 물러나면 적절히 調補脾氣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大法이다.<sup>134)</sup>

(7) 醫學綱目<sup>135)</sup>

急驚은 주로 痰熱 때문에 마땅히 涼瀉시켜야 하니 降火下痰養血시키는 藥을 使用한다.<sup>136)</sup>

(8) 醫學入門<sup>137)</sup>

治療에 있어서는 先後의 次例와 쉽고 어려운 豫候를 分別할 줄 알아야 한다.<sup>138)</sup>

搐을 다스리려면 먼저 截風을 하여야 하고, 風을 다스리려면 먼저 利驚을 하여야 하고, 驚을 다스리려면 먼저 豁痰부터 해야 하고, 痰을 다스리려면 먼저 解熱부터 해야 하는 것이니 만약 風驚痰熱의 四症이 다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兼해서 治療하여 모두 다스리되 하나라도 후 빠뜨리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症狀이 發生하게 될 것이므로 治療에 있어서 先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sup>139)</sup>

(9) 幼科折衷<sup>140)</sup>

大抵 抽搐을 治療하는 方法은 寬氣시키는 것이 妙가 되니 氣가 順調로우면 抽搐은 자

130) 婁全善 亦曰 急驚屬木火土實 ... 治法 宜涼宜瀉. 驚而發者 牙關緊急 壯熱涎潮 竄視反張 搐搦顫動 脣口眉眼引口中熱氣 頰赤脣紅而便秘結 脈浮洪數緊 此內有熱實 外挾風邪 當截風定搐. 若痰熱相作 仍微下之 痰熱既泄 急宜調養胃氣. 搐定而痰熱所退即宜調補脾氣.

131) 東垣云 ... 蓋急驚者風木旺也 風木屬肝 盛則必傳剋於脾 欲治其肝 當先實脾 後瀉風木.

132) 大抵此證 屬肝膽經血虛 風火相搏而善行數變者 爲多 若不養肝血 不補脾氣 純用祛風化痰之藥 則脾益虛 血益損 邪氣涎綿 必傳慢驚矣.

133) 龔廷賢撰 : 前揭書, p.389

134) 此內有實熱 外挾風邪 當截風定搐 若痰熱尙作 仍微下之 痰熱既泄 急宜調養胃氣 搐定而痰熱所退 節宜調補脾氣 此大法也.

135) 樓英 : 前揭書, p.823

136) 急驚主痰熱 當涼瀉之 只用降火下痰養血之藥.

137) 李梴 : 前揭書, pp.481~483

138) 治分先後 與易難

139) 治搐 先於截風 治風 先於利驚 治驚 先於豁痰 治痰 先於解熱 其若四證 俱有 又當兼施并理 一或有遺 必生他證 故 曰治有先後

140) 秦昌遇編著 : 前揭書, p.6~8

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이것이 自然의 理致이다.<sup>141)</sup>

內經에 이르기를 熱이 안에서 넘치면 甘味로 瀉하고 酸味로 收斂시킨다 하였다 ... 酸味는 능히 肝木을 瀉하고 肺金을 크게 補하여 金土를 補하는 位置에 있게 된다. 土가 旺盛하면 火가 虛해지니 風木이 어떻게 土를 剋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土를 旺盛하게 한 후에 風木의 旺盛함을 瀉해야 한다. 脾虛하면 火邪가 土位를 틈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뒤에서 오는 경우는 虛邪이다’라고 하니 火가 旺盛하면 능히 木을 實하게 하고 木이 旺盛하면 土를 剋하게 되므로 마땅히 心經中 甘溫으로 土의 根源을 補한다; 또 脾土中에서 甘寒으로 火를 瀉하고 酸涼으로 金을 補하므로 脾土中의 金은 旺盛하고 火는 衰하면 風木은 自然히 虛하게 된다.<sup>142)</sup>

(10) 景岳全書<sup>143)</sup>

이것을 治療하는 方法에는 중요한 점이 몇가지 있다. 대개 첫 번째는 風이요, 두 번째는 火요, 세 번째는 痰이요, 네 번째는 陽虛요, 다섯 번째는 陰虛니 단지 이것의 緩急만 살필수 있으면 治療는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風이란 것은 強直掉眩하니 모두 肝에 屬하고, 風과 木은 같은 氣運이므로 驚風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外感의 症

狀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뜻을 明確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風을 治療하기 위해서 흩어내는 藥을 빼놓지 않고 쓰고 있으니 밖에서 들어온 風은 흩어낼 수 있지만 血이 말라서 생긴 風(血燥之風)은 흩어낼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防風, 荊芥, 羌活, 細辛, 乾葛, 柴胡, 紫蘇葉, 薄荷, 獨活 같은 藥物은 果연 外感發熱無汗等證에는 잠시 使用할 수 있다. 가령 外邪가 없으면 가장 마땅히 삼가야 할 藥物인 것이다. 흩어내는 藥物을 使用하는데는 불가불 삼가야만 한다.<sup>144)</sup>

이른바 痰火라고 하는 것은 痰이 凝結되면 氣閉가 되고 火盛하면 陰虧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實邪로 困한 本病이다. 만약 痰이 火로 困하여 動하게 되면 火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요 火가 痰으로 困하여 머물러 있게 되면 痰을 除去하는 것이 爲主가 된다.<sup>145)</sup>

大抵 以上에 있는 것은 모두가 急할 때 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痰火가 조금 물러갔으면 마땅히 氣血을 補해야 한다.<sup>146)</sup>

(11) 醫宗金鑑<sup>147)</sup>

① 通關急求法

141) 大抵治搖之法 以寬氣爲妙 氣順則搖定 此自然之理.

142) 內經云 熱淫于內 以甘瀉之 以酸收之 ... 酸能瀉肝木而大補肺金. 所補得金土之位. 土旺則火虛矣. 風木何由以來剋土. 然後瀉風木之旺脾虛者 以火邪乘其土位故也. 故曰 從後來者爲虛邪, 火旺能實其木 木旺故來剋土 當于心經中 以甘溫補土之源, 更于脾土中瀉火以甘寒補金以酸涼 故治脾土中金旺火衰 則風木自虛也矣.

143) 張介賓: 前揭書, pp.907~909

144) 治此之法有要存焉 蓋一曰風 二曰火 三曰痰 四曰陽虛 五曰陰虛, 但能察此緩急則盡至矣. 所謂風者 以其強直掉眩皆屬肝木 風木同氣 故云驚風 而實非外感之證. 今人不明此意 但爲治風必須用散, 不知外來之風可散 而血燥之風不可散也. 故凡與防風 荊芥 羌活 獨活 細辛 乾葛 柴胡 紫蘇 薄荷之類 使果有外邪發熱無汗等症 乃可暫用 如無外邪 則最所當忌 此用散之不可不慎也.

145) 所謂痰火者 痰凝則氣閉 火盛則陰虧 此實邪之病本也. 若痰因火動 則治火爲先 火以痰留 則去痰爲主.

146) 凡以上者 皆急則治標之法 但得痰火稍退 卽當調補氣血.

147) 吳謙等編: 前揭書, p.590



驚風搐搦은 神氣가 昏憤하니 心胸에 痰壅氣塞된 것이다. 급히 通關散<sup>148)</sup>을 코안으로 불어넣어 재채기가 없으면 죽을 것이요 재채기를 하면 살게 된다.<sup>149)</sup>

② 急驚後調理法

急驚에는 寒涼한 藥을 많이 使用하는데 이는 急할 때 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但 痰火가 조금 물러나면 곧 마땅히 氣血을 調補해야 한다. 만약 寒涼한 藥을 過用하게 되면 반드시 慢驚風의 症狀으로 轉變된다.<sup>150)</sup>

(12) 中醫兒科學<sup>151)</sup>

驚證에는 安神鎮驚의 治法으로 清熱鎮驚湯, 또는 安神鎮驚丸을 使用한다.

風證에는 息風開竅의 治法으로 清熱鎮驚湯 또는 安神鎮驚丸을 使用한다.

痰證에는 息風開竅하는 治法으로 至寶丹을 쓰며 痰盛生驚하면 滌痰攻下하는 牛黃丸을 使用하고, 熱極生風하면 清熱息風의 治法을 使用하는데 大便秘結하면 涼膈散으로 清瀉內熱하면 風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나 痰, 熱, 驚, 風의 四證은 臨床에서는 相互并見하므로 완전히 分離해서는 안되고 治療에 있어서도 具體的인 病情에 따라 活用해야 한다.

(13) 東醫小兒科學<sup>152)</sup>

急驚風은 그 症狀이 輕重 深淺의 區別이 있고 緩急의 差異가 있는 바 治療에 있어서

는 결국 急한 境遇에는 우선 그 標證을 治療한다는 原則에서 症勢가 急해져서 昏睡狀態에 빠지고 이를 악물고 두 눈을 치뜨고 痙攣이 심할 때는 속히 그 標證을 治療해야 하는데 開竅鎮靜시킨다 ... 表證이 除去되면 原因을 따져서 治療해야 한다. 이것은 病이 緩慢할 境遇에는 그 根本을 治療한다는 理論에 根據하여 驚風이 된 原因을 糾明해서 辨證하는데 驚風을 일으킨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

初起에 外感風寒으로 表證이 있는 것은 發散시키고 食滯된 것은 消化시켜서 通하게 하고 熱이甚해서 驚風이 된 것은 解熱시키고 痰이 盛해서 驚風이 된 것은 祛痰시켜야 한다. 만약 頭瘡이나 紅疫, 痢疾 등으로 因해서 驚風이 된 것은 각각 그 基本 疾患을 治療한다. 대체로 驚風을 治療할 때 重要한 것은 痰, 熱, 驚, 風의 四證에 解熱法, 祛痰法, 鎮痙法, 熄風法 等 네가지 方法을 잘 應用해야 한다.

① 解熱法

外感으로 인해서 高熱이 나며 머리를 흔들고 두 눈을 치뜨며 이를 악물면서 驚風이 되려고 하는 症狀에는 發散시켜 熱을 내리게 하는 方向에서 銀翹散, 加味敗毒散을 쓴다. 그러므로 金石劑나 龍腦, 麝香같이 내려 누르는 藥을 쓰는 것은 無益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邪氣를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 그리고 發散시키는 것도 정도에 알맞게 하지 않으면 땀을 많이 흘려서 血虛해지면서 熱이 내리지 않고 도리어 힘줄이 당기게 되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한다.

② 祛痰法

驚風을 治療하는데 먼저 痰을 除去한 후에 熱을 내리게 하고 精神을 安定시켜야 한다. 만약 胸膈에 痰이 막혀 있을 때 痰을 除去하지 않고 熱을 내리게 하고 精神을 安

148) 上揭書, p.590  
通關散:半夏(生) 皂角 細辛 薄荷 各等分. 共爲細末 用筆管吹入鼻內少許.  
149) 驚風搐搦神昏潰 痰壅氣塞在心胸 急用通關吹入鼻 無嚏則死有嚏生.  
150) 急驚多用寒涼之藥 亦急則治標之法. 但是痰火稍退 卽當調補氣血. 若過用寒涼 必致轉成慢驚等證.  
151) 江育仁主編:前揭書, pp.121~136  
152) 東醫小兒科學:前揭書, pp.99~100

定시키는 藥만을 써서는 成果를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淸熱豁痰湯을 써서 祛痰解熱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食滯가 있고 痰이 막히고 便秘가 있으면서 驚風이 된 때는 不換金正氣散을 써서 消化시키면서 痰熱을 大便으로 排泄시켜야 한다. 그리고 鍼灸療法을 實施하는 것이 藥보다 效果가 迅速할 때가 적지 않다.

### ③ 鎮驚截風法

臨床적으로 나타나는 症狀은 精神이 맑지 못하고 헛소리하며 놀라고 角弓反張 項部強直 手足搐搦 竄視 等 驚風症狀이 나타날 때에는 開關散 혹은 嚏驚散을 써서 재채기를 시켜 急한 것을 돌리는 동시에 病勢에 따라 肝風과 놀라고 痙攣이 있는데와 胎風에는 驅風膏를 쓴다. 마음을 安定시키고 驚氣를 멈추고 邪氣를 헤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鎮心丸을 쓰고, 急驚風 熱을 治療할 때는 鎮肝丸을 쓰고, 精神을 安定시키고 熱을 내리게 하고 가래를 삭게 하려면 鎮驚丸을 쓰고, 놀라는 것을 鎮靜시키고 風을 除去하고 痙攣을 鎮靜시키는 데는 補遺化風丹을 쓴다. 만약 驚風, 發熱, 昏睡狀態, 痰이 盛하면 抱龍丸, 截風丸을 쓸 것이며, 熱이 그리 높지 않고 驚風이 發生해서 時日이 비교적 오랜 데는 더운 藥을 쓰지 말고 蘇合香丸을 쓰는 것이 좋다.

#### (14) 東醫小兒科學<sup>153)</sup>

##### ① 通關急求法

驚風이 발작할 때 患兒는 대개 神氣昏憤와 意識傷失을 나타낸다. 이는 痰熱이 蓄蘊하고 裏氣가 壅塞되며 氣機의 條達을 잃어 經絡不通을 惹起시켰기 때문에 厥逆抽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급히 通關散을 코 안으로 취입하는데 만약 취입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嘔吐하지 않는 것은 生氣가 이미 絶한 증세로 임상에서는 대개 치료하기 어렵고, 만약 취입후에 즉시 嘔吐하면 이는 환자의 生氣가 未絶하여 서서히 깨어난다. 그 다음은 상세히 그 病情이 虛인지 實인지 寒에 속하는지 熱에 속하는지를 관찰하여 辨證施治해야 하며 熱이 盛하면 痰을 生하고, 痰이 盛하면 驚을 生하고, 驚이 盛하면 風을 生하고, 風이 盛하면 搐이 發하므로 搐에는 風을 絶하고, 風에는 驚을 利하고 驚에는 痰을 割하고, 痰에는 解熱하는 선후의 治법에 유의해야 한다.

〈通關散〉 半夏生 皂角 細辛 薄荷 各 等分  
위 약물을 細末로 하여 筆管으로 코 안에 약간 취입한다.

### 附) 針灸法

#### (1) 古今醫鑒<sup>154)</sup>

小兒驚風に 男兒는 左側 乳頭의 黑肉上에, 女兒는 右側 乳頭의 黑肉上에 뜸을 뜨되 한 살 때는 3壯을 뜨고 2~3살 때는 5~7壯을 뜬다.<sup>155)</sup>

#### (2) 及幼方<sup>156)</sup>

百會穴은 모든 陽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脈의 根源이 된다. 驚痰에 뜸을 뜨면 곧 낫게 되고 半身不遂와 눈알이 바르지 못하며 병어리가 되어 말 못하는 데도 다 효과가 있다. 아이가 急驚風 후에 痙攣은 멎었으나 목구멍에 가래는 그대로 있고 精神이 오랫동안 깨지 못할 때에는 百會穴에 뜸을 뜨고 滯驚散을 붙여 넣어 재채기를 하게 하면 곧 깨어난다.

#### (3) 東醫小兒科學<sup>157)</sup>

154) 龔信：前掲書, p.396

155) 灸小兒驚風 男左乳黑肉上 女右乳黑肉上. 周歲灸三壯 二三歲灸五七壯.

156) 趙廷俊著：前掲書, p.75

153) 丁奎萬編著：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0, p.179

針灸療法

- ① 少商 商陽 中衝 關衝 少衝 少澤(十二井穴)
- ② 十宣穴
- ③ 合谷 足三里
- ④ 神門 間使 陽陵泉 隱白 湧泉 風池 身柱 大腿 百會 人中 印堂 中脘 足三里

·手技는 15~30秒 동안, 3~10分 以上 留針 하는 것이 좋고 十二井穴과 十宣에서는 약간 出血시키는 것이 좋다.

·좌우 엄지발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놓고 두 발톱 사이 중간에 뜬 3壯을 뜨는데 손에다 뜨는 방법으로 뜬다. 순서는 먼저 발을 뜨고 후에 손에 뜬다. 뜬봉의 크기는 밀알만 하게 한다.

·小兒急驚風을 治療하는데 前頂穴에 뜬을 떠서 낮지 않으면 眉間에 位置하고 있는 左右 눈썹 끝과 人中穴에 각각 뜬 3壯씩 뜬다.

(4) 實用中醫兒科學<sup>158)</sup>

針刺療法簡捷而有效 應須先選用. 取人中 十宣 合谷 湧泉 神門 等 穴中 2~3穴, 快速 強刺激不留針. 喉中痰鳴者 加豐隆 天突, 高熱面赤者 加大椎 曲池, 牙關緊閉者 加下關 頰車.

(5) 中醫兒科學<sup>159)</sup>

抽搐時刺人中 內關, 伴高熱配曲池 十宣 合谷, 伴昏迷配百會 湧泉

(6) 中醫兒科學<sup>160)</sup>

針刺: 驚厥取人中 合谷 內關 太衝 湧泉 百會 印堂. 高熱 取穴 曲池 大椎 十宣放血. 痰鳴取穴 豐隆. 牙關緊閉取穴 下關 頰車. 均

採用中強刺激手法.

### Ⅲ. 考察

#### 1. 驚風에 대한 개괄

驚風은 痙攣과 發熱을 主要 症狀으로 하는 小兒科 領域의 救急疾患 中の 하나이다. 驚風은 아직 臟腑와 經絡이 完全하게 發育하지 못하고 氣血이 充實하지 않은 6歲 以前의 小兒에서 흔히 發生한다.<sup>161)</sup>

驚風의 症狀은 大概 四證과 八候로 概括된다. 四證 八候의 概念이 出現한 것은 宋代로 以前에 단순히 羅列되던 症狀들을 原因 및 病理機轉에 따라 몇가지로 區分한 것이다. 四證은 驚證, 風證, 痰證, 熱證을 가리키는데, 驚風의 諸症狀을 發生되는 原因 및 關聯 臟腑에 따라서 네가지로 나누어 說明한 것이다. 이 네가지 證狀은 先後主次가 있으며 時間이 經過하여 病이 심해짐에 따라 모두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四證의 症狀은 各各 다음과 같다.<sup>162)</sup>

痰證: 咳嗽氣促 痰涎壅盛 或滿口痰濁 喉中 痰鳴 聲如洩鋸聲 神志不清 或昏迷

熱證: 高熱目赤 脣頰?紅 煩渴飲冷 便秘溲赤 甚至神昏譫語

驚證: 昏譫驚叫 或恐懼不安

風證: 牙關緊閉 口角牽引 二目竄視 四肢抽搐 項背強直 甚則角弓反張

四證이 發現된 후 八候의 症候가 나타난다. 八候는 搐 搦 掣 顛 反 引 竄 視의 여덟가지 症候를 말하는데 八候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驚風의 進行程度가 甚하다는 것

157) 東醫小兒科學: 前揭書, pp.102~103  
 158) 江育仁·張奇文主編: 實用中醫兒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454  
 159) 上海中醫學院編: 前揭書, p.147  
 160) 江育仁主編: 前揭書, p.130

161) 東醫小兒科學: 前揭書, p.95  
 162) 江育仁主編: 前揭書, p.122

을 의미한다. 八候의 各 症候가 意味하는 症狀는 다음과 같다.<sup>163)</sup>

- 搐者 兩手伸縮
- 搦者 十指開合
- 掣者 勢如相撲
- 顛者 頭偏不正
- 反者 身仰向後
- 引者 臂若開弓
- 竄者 目直似怒
- 視者 睛露不活

## 2. 驚風の 病因病理

驚風은 《內經》에서 처음 言及된 이래 小兒 四證의 하나로 많은 小兒科 醫師들의 주된 研究對象이 되어 왔다. 驚風은 一見 單純한 疾患처럼 보이지만 誘發原因이나 病理情況 및 五臟의 相生相剋을 살펴보면 매우 複雜하고 어려운 疾病으로 醫家들의 說역시 時代別로 많은 變化가 있어왔다. 그러나 대체로 共通的인 것은 驚風이 小兒의 生理的 特徵이 여러가지 誘發原因들에 의해 紊亂되어 病理情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節에서는 驚風の 病因病理에 대해서 時代別로 醫家들의 主된 理論을 살펴보고, 이어서 小兒의 生理的 特徵 및 誘發原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醫史學的 考察

#### (1) 內經時代

驚風の 主된 原因으로 《內經》에서는 大驚을 말하고 있지만 仔細한 病理機轉은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內經》에서 말하고 있는 癩疾은 現在 大部分 醫家들의 見解로는 癩疾에 가까운 疾患이라고 認識되고 있다.<sup>164)</sup> 그러나 內經時代에 癩疾과

驚風은 한가지 疾患으로 認識되고 있었기 때문에 結局 驚風の 原因을 大驚이라고 認識하는 것 역시 그리 틀린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 (2) 宋·金·元代

巢元方은 大驚으로 인한 驚風の 發生을 더욱 깊이 研究하여 “由血氣不和 熱實在內 心神不定”라는 病理機轉을 밝혀 냈으니<sup>165)</sup> 卽 大驚으로 인해서 內에 熱이 發生하고 熱이 甚해져서 風이 發生하면 抽搐이 發生한다는 認識이다. 여기서 內에 熱이 發生한다는 것은 주로 心熱이나 心火를 말하는 것이다. 錢乙은 이를 두고 陽盛陰虛의 症이라 하였다.

錢乙 以來로 驚風에 대한 認識이 깊어짐에 따라 驚風の 症을 五臟의 虛實과 聯關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錢乙은 驚風을 心熱과 肝風으로 보았으며 大驚으로 心熱이 發生되고 熱極生風하여 風이 動하면 抽搐이 일어나 發驚한다고 하였다.<sup>166)</sup>

李杲는 肝木이 實하여 木乘土하므로 脾胃가 虛損해지는 것이 驚風の 주된 病理로 보았다. 驚風에서 脾土가 損傷되는 것이 주된 病理情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五行相生相剋說을 利用하여 論理的으로 說明하고<sup>167)</sup> 治療에 應用한 것은 驚風 治療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할 만 하다.

#### (3) 明·清代

明代의 薛己는 錢乙의 理論을 繼承 發展시키는 한편 肝經血虛로 인한 火動으로 肝風이 發生하는 것을 驚風の 주된 病理로 보았는데 “먼저 火가 動하여 肝風이 發生하면 陰血이 더욱 損傷되므로 陰火가 熾盛하게 되고 또 火가 動하면 肺金을 制御하므로 肝

165) 巢元方：前掲書，pp.8~9

166) 錢乙：前掲書，pp.27~28

167) 李杲：前掲書，pp.241~244

163) 龔信：前掲書，pp.395~396

164) 楊維傑編：前掲書，p.361

邪가 더욱 熾盛하게 되서 驚風이 發生된다”<sup>168)</sup>고 主張하였다. 또한 “肝은 恒常有餘하니 有餘하면 瀉하고 덜어내야 하며, 脾는 恒常 不足하니 不足하면 補하고 더해줘야 한다”<sup>169)</sup>고 하여 脾土의 調理를 治療의 重要한 部分으로 생각하였다.

明代에 이르러서 外感風邪나 食傷으로 인한 痰熱 등이 驚風을 誘發한다는 說이 提示되면서 驚風의 誘因에 대한 學說이 定立되기 시작하였다. 急驚風의 三因說은 萬密齋의 學說로 內因은 飲食傷으로 因한 痰熱이며 外因은 感受風邪로 因한 發驚, 不內外因은 大驚卒恐으로 因한 心熱이라는 主張이다. 萬密齋의 急驚風有三因說은 後代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면서 事實上 驚風의 誘因을 確立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0)</sup>.

明代에는 小兒의 生理的 特徵과 驚風의 發生의 關聯性에 대한 理論들이 더욱 發展하였다. 이미 錢乙은 “小兒는 純陽에 屬하여 發病에 있어서 易寒易熱한다”<sup>171)</sup>고 認識하였고 河間은 “小兒 六歲 以前은 未 經絡이 完全하지 못하므로 病이 들면 治療하기 힘들다”<sup>172)</sup>는 言及을 하여 嬰兒와 成人이 生理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認識水準은 基礎的인 것에 不過하며 小兒의 生理的 特徵에 대한 具體的인 言及은 明代에 이르러서 出現하고 있다.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小兒 八歲 以前을 純陽으로 보아 眞水는 아직 旺盛하지 않은데 心火는 이미 炎上하므로 肝常有餘, 脾常不足하며 이런 小兒의 生理的 特徵으로

말미암아 成人과는 다른 ‘驚風’이란 病證이 發生한다고 主張하였다<sup>173)</sup>. 이후 龔信이나 秦昌遇 王綸 등의 醫家들이 모두 虞搏의 說을 좇아 小兒의 生理的 特徵과 驚風의 發生과의 關聯性을 主張했다. 張介賓 역시 小兒 眞陰不足說을 내세웠는데 小兒는 陰이 不足하여 肝邪가 쉽게 動하고 木은 능히 火를 生하고 火는 다시 風을 生하게 되서 風熱이 相搏하면 驚風이 發生된다고 主張하였다.<sup>174)</sup>

한편 明代의 李梴은 驚風을 眞搐과 假搐으로 나누어 眞搐은 大驚으로 痰이 發生하고 痰生熱 熱生風하여 驚風이 發生하는 것이고 假搐은 外感, 內傷에 驚이 兼하여 發生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sup>175)</sup> 이는 誘發原因에 따라 驚風을 區別한 것으로 大驚으로 인한 抽搐 만을 眞搐이라 하였고 外感風邪나 內傷飲食에 驚을 兼한 境遇는 驚風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清代에는 小兒의 急性熱性病까지 驚風으로 보기 始作하였는데 이것은 溫病學의 發達에 起因한 듯 하다. 즉 誘發原因中 外因으로 風寒邪보다는 時邪나 瘟疫之邪를 強調하는 說이 提起되었다. 外感邪로 因해서 肝의 疏泄失常이 惹起되고 이로 因해서 痰鬱이 火로 化하여 驚風이 發生한다는 理論으로 明代까지의 理論과는 相異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肺失肅降 肝乘太過로 因해서 驚風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陳復正은 “暑證 瘧痢 咳嗽 丹毒 瘡頭 霍亂이 時日이 많이 經過되어 그 熱이 더욱 甚해지면 小兒는 陰血이 不足하여 壯熱을 견뎌내지 못하고 熱이 盛해지면 神志昏悶하게 되며 陽이 亢進되면 만드시 津液이 損傷

168) 薛己：前揭書，p.194

169) 上揭書，p.193

170) 萬密齋：前揭書，pp.65~71

171) 錢乙：前揭書，pp.27~28

172) 劉完素：前揭書，p.234

173) 虞搏：前揭書，p.390

174) 張介賓：前揭書，pp.907

175) 李梴：前揭書，pp.481~483

되고 血이 筋을 營養하지 못하므로 手足이 搐掣하게 된다”<sup>176)</sup>고 하였는데 이 學說 역시 溫病學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 2) 小兒生理의 特徵

驚風은 원래 內的인 原因이 있는데다 여러 가지 誘發要因에 의한 刺戟을 받음으로써 發生된다. 內的인 原因은 基本的으로 小兒生理의 特徵과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다. 대개 小兒는 臟腑가 完全하지 못하고 氣血도 充實하지 못하며 經絡 또한 完全히 發育되지 못한 狀態로<sup>177)</sup> 여러 가지 誘因의 刺戟에 의해서 臟腑의 平衡이 쉽게 깨어지게 되며 그 결과 驚風이 發生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小兒의 生理的 特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첫째, 臟腑 發達이 未熟하고 形態的으로도 不完全하며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未熟하다. 古人들은 六歲 以前의 小兒는 臟腑의 發育이 完全하지 못하고 經絡도 完全하지 못하여서 病에 걸리면 治療하기 어렵다<sup>178)</sup>고 생각하였다.

둘째, 生長機能이 旺盛하여 成長과 發育이 빠르다. 이를 두고 小兒를 純陽이라고 表現하기도 하고<sup>179)</sup> 少陽之氣에 配屬시키기도 하였으니 이는 小兒의 旺盛한 生長力을 두고 한 말이다.

셋째, 小兒의 生理가 陽有餘 陰不足의 狀態에 있다는 것이다. 陽有餘라고 말한 것은 發育機能의 旺盛함을 이룬 것이고 陰不足이란 後天性的 滋潤培養力이 아직 未洽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古代의 醫家들은 小兒의 五臟虛實에 對해서 대체로 心肝은 有餘하고 脾土는 恒常 不足하며 腎水도 不足하다고 認識하였는데, 이는 小兒가 八歲以前은 純陽으로 眞水가 아직 旺盛하지 않고 心火는 이미 炎上한 상태로 肺經이 制御를 받아서 木을 平하게 하지 못하므로 肝木은 恒常 有餘하고 脾土는 恒常 不足하다고 본 것이다.<sup>180)</sup>

요컨대 小兒는 純陽에 屬하여 邪氣를 받은 後에 쉽게 熱로 變化하고, 또 臟腑가 軟弱하고 形氣가 充分하지 않으므로 高熱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熱極生風의 證狀에 이르게 된다. 또한 風邪는 그 性質이 善行而數變하고 熱極生風하므로 風火가 서로 부채질하게 되면 肝風을 動하게 하는데, 이것이 急驚風의 主要 病理가 된다.

## 3) 病因病理

驚風의 病因은 明代 萬密齋<sup>181)</sup>의 驚風有 三因說이 가장 잘 具備되어 있다. 그는 驚風의 誘發原因을 外因인 感受風邪와 內因인 內傷飲食, 不內外因인 大驚의 세가지로 區分하였다. 外因은 感冒風寒溫濕之氣요 內因은 飲食傷이요 不內外因은 驚恐 혹은 客忤 中惡이니, 以後의 病因說은 거의 萬密齋의 學說에 影響받았음을 볼 수 있다.

萬密齋가 主張한 三因은 結局 驚風을 誘發시키는 要因, 卽 誘因을 뜻하는 것으로 小兒의 生理的인 臟腑虛實을 惡化시켜서 疾病에 이르도록 誘導하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卽 驚風은 위에서 言及한 生理的 特徵인 心肝有餘 狀態에서 大驚, 外感, 內傷飲食 등으로 因해서 心熱이 亢盛하여 肝風이 動함으로 因해서 抽搐의 症狀이 發生되는 疾患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176) 陳復正：前揭書, p.96

177) 龔信：前揭書, pp.395~396

178) 夫小兒六歲之上爲小兒, 十八歲已上爲少年, 其六歲以下者 諸經不載 是以乳下嬰兒 有病難治 無可定也.

179) 虞搏：前揭書, p.390

180) 上揭書, p.390

181) 萬密齋：前揭書, pp.65~71

일단 生理的 狀態가 무너져서 病理化되면, 연이어 여러가지 病理情況이 誘發되는데 卽, 熱이 亢盛하면 痰을 生하고 痰이 盛하면 風을 生하며 風이 盛하면 抽搐이 發生<sup>182)</sup>되므로 驚風의 四證이 各各 形成되며, 이런 一連의 科程이 驚風이 發生되는 基本 病理科程이 된다.

小兒가 낮은 사람이나 異常한 物體를 보거나 或 非正常的인 큰 소리나 奇物의 소리를 듣게 되면 놀라서 이것이 心의 包絡으로 侵入하여 火가 타고르면 火의 居處가 비게 되어 그 곳에 痰이 모이게 되고 痰生熱하고 熱生風하게 되서 驚風이 발생되니 心肝脾의 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83)</sup>

心熱肝風의 熾盛으로 因해서 驚風이 發生되는 것 이외에도 肝經의 血虛에 起因하는 境遇도 있다. 肝經血虛로 火가 動하면 風이 生하고, 風이 發生함으로써 陰血은 더욱 虧어지고 陰火는 더욱 熾盛해진다. 이렇게 되면 火克金하여 肺는 더욱 虛해지고 金不制木하여 肝은 더욱 旺盛해지게므로 驚風이 더욱 甚해진다.<sup>184)</sup>

다만 驚風이 오래 持續되거나 원래 脾土가 弱한 小兒의 경우 心熱制肺金하고 金不能制木하며 木乘土하여 脾氣不足이 發生<sup>185)</sup>하는데 脾氣不足은 驚風에 있어서 重要한 病理情況이 되므로 恒常 이를 看過해서는 안된다.

### 3. 驚風의 治法

驚風의 治法 역시 醫家에 따라 主眼點이 다르다. 基本的으로 驚風은 陽熱한 實證<sup>186)</sup>

이므로 涼瀉法<sup>187)</sup>이 主가 된다. 그러나 臟腑虛實이나 或은 患兒의 狀態에 따라서 涼瀉法을 써서는 안되는 境遇도 많고, 또한 主症狀이 四證 中 어떤 것에 該當하는 지 살펴서 各기 適當한 治療法을 選用하기도 한다.

#### 1) 醫史學的 考察

驚風에 대한 醫家들의 見解가 各各 相異하므로 그에 따른 治法 역시 多樣하다.

錢乙은 內有實熱 外挾風邪로 驚風의 病理를 把握하고 그에 따라 祛風下熱시키는 治法을 主張하였다. 樓英<sup>188)</sup>은 驚風을 木火土實로 보아 治法으로 苦寒, 甘寒한 藥物을 使用하는 涼瀉法을 使用하였다. 虞搏<sup>189)</sup>은 驚風을 肝木風盛으로 因해서 생긴 것으로 보아서 清涼苦寒한 藥物을 使用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驚風을 實熱에 起因한다고 보아 涼瀉시키는 治法을 使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본 것이다.

反面에 一部の 醫家들은 脾土의 虛損을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는데 이들은 驚風을 涼瀉시킴으로 인해서 敗證이 발생하거나 慢驚風으로 傳變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杲<sup>190)</sup>은 驚風 中 風證은 肝木이 實한 것이니 木乘土하므로 마땅히 土를 먼저 實하게 하고 나서 木을 瀉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王綸<sup>191)</sup> 역시 急驚風은 비록 肝心에 屬하지만 木火가 旺盛하면 肺金이 虧損되어 木을 平하게 하지 못하고 土를 剋하지 못하므로 土가 損傷되기 때문에 마땅히 脾를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182) 虞搏 : 前揭書, p.390  
183) 李梴 : 前揭書, pp.481~483  
184) 薛己 : 前揭書, p.194  
185) 錢乙 : 前揭書, pp.27~28  
186) 吳謙等編 : 前揭書, p.590

187) 樓英 : 前揭書, p.823  
188) 上揭書, pp.822~833  
189) 虞搏 : 前揭書, p.390  
190) 李杲 : 前揭書, pp.241~244  
191) 王綸 : 前揭書, p.156

張介賓<sup>192)</sup>은 驚風の 주된 原因을 痰火로 보았으며 그 다음이 風邪라고 하였다. 痰火에는 마땅히 祛痰이나 降火의 治法을 選用하였다. 또한 驚風の 風證은 外邪의 感受로 인한 것이 아니라 血燥之風을 意味하며 肝木과 風이 同氣이므로 任意로 使用한 이름이라고 하고 荊芥나 防風 羌活 獨活 等の 祛風之劑의 使用을 禁하였다.<sup>193)</sup>

또한 王綸<sup>194)</sup>과 張介賓<sup>195)</sup>은 驚風이 甚해지는 것은 肝血虛로 因한 火動 때문으로 보아 養血시키는 것을 驚風の 重要한 治法의 하나로 主張하기도 하였다.

한편 李梴<sup>196)</sup>은 搐을 다스리려면 먼저 截風을 하여야 하고, 風을 다스리려면 먼저 利驚을 하여야 하고, 驚을 다스리려면 먼저 豁痰부터 해야 하고, 痰을 다스리려면 먼저 解熱부터 해야 하는 것이니 만약 風驚痰熱의 四證이 다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兼해서 治療하여 모두 다스려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2) 治法

驚風을 치료할 때는 症狀을 잘 살펴 그 虛實, 緩急을 밝혀내는 것이 重要하다. 症勢가 急한 境遇에는 우선 標證을 治療한다는 原則에서 治療하고 症狀이 좀 緩和되면 驚風이 發生한 原因을 糾明하여 根本을 治療하는 것<sup>197)</sup>이 治療의 原則이다. 危證, 急證일 때는 通關急求法<sup>198)199)200)</sup>을 使用하며, 急證이 풀리면 內因, 外因, 不內外因의 三因

에 따라서 각각 治療한다. 그밖에 痰, 熱, 驚, 風의 四證에 대하여 각각 祛痰法, 解熱法, 鎮驚法, 息風法 등을 使用하기도 한다.

### (1) 通關急求法<sup>201)</sup>

驚風搐搦이 있으면서 神氣昏憤하면 이는 心胸에 痰壅氣塞한 것이므로 이런 症狀에는 通關散을 코안으로 붙여넣어 재채기를 하는지 살펴본다. 재채기를 하면 살 수 있고 재채기가 없으면 죽는다.

### (2) 原因에 따른 治法

驚風은 一般的으로 心熱肝風의 實熱證에 屬하므로 涼瀉法이 基本的인 治法이 된다. 즉 苦寒, 甘寒之劑를 使用하여 降火清熱시킴으로써 抽搐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sup>202)</sup> 그러나 驚風을 誘發하는 原因이 多樣하므로 一律적으로 같은 治法만을 使用할 수는 없으며 驚風을 誘發시킨 原因을 除去할 수 있는 治法을 選用해야 한다.

驚風을 治療할 때는 무릇 症狀을 자세히 살펴서 先後와 緩急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sup>203)</sup>, 이어서 症狀을 誘發시키는 原因을 밝혀내서 그 原因을 除去해야 한다. 즉 外感風寒邪로 因한 境遇는 發散을 兼해야 하고, 內傷飲食으로 인한 境遇는 消導를 兼해야 하며, 大驚으로 因한 경우는 鎮驚安神시키는 治法을 兼용해야 한다.<sup>204)</sup>

이런 原因別治法은 症狀을 四證으로 區分하여 治療하는 方法과 類似的한 점이 많이 있다. 驚風の 諸症狀은 大概 原因 및 病理에 따라 驚證, 風證, 痰證, 熱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發生하여 主證이 되는 證을 爲 主로 治療하되 兼證을 解消할 수 있는 治法을 兼用하여 治療한다. 만약 驚證이 爲主가

192) 張介賓：前掲書，p.907

193) 上掲書，pp.907~909

194) 王綸：前掲書，p.156

195) 張介賓：前掲書，p.907

196) 李梴：前掲書，pp.481~483

197) 東醫小兒科學：前掲書，p.99~100

198) 周定王·朱楠撰：前掲書，p.350~351

199) 吳謙等編：前掲書，p.590

200) 丁奎萬編著：前掲書，p.179

201) 吳謙等編：前掲書，p.590

202) 樓英：前掲書，pp.822~834

203) 李梴：前掲書，pp.481~483

204) 東醫小兒科學：前掲書，pp.95~104



되면 鎮驚法을, 風證이 爲主가 되면 祛風法을, 痰證이 爲主가 되면 祛痰法을, 熱證이 爲主가 되면 清熱法을 主로 하되 兼證을 治療하는 藥物을 配合해준다.<sup>205)</sup>

大概 驚風이 熱證 風證이 基本이 되지만 風證이라고 해서 반드시 外風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血燥로 因해서 생기는 內風 역시 驚風을 誘發시키는 原因이 되기 때문에 外風을 發散시켜주는 藥物만을 固執해서는 안된다.<sup>206)</sup>

또한 肝經血虛로 因해서 火動하여 風이 熾盛한 境遇에는 木乘土하여 脾胃를 크게 損傷시키기 때문에 脾胃를 調理하는 것이 主가 되어야 한다. 만약 邪氣가 旺盛하여 木乘土로 脾土를 侵犯한 境遇에는 쉽게 慢驚風으로 傳變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脾胃를 調補하는 것을 優先으로 한다. 또한 血虛하여 心火肝風이 더욱 動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清熱하면서 養血하는 것이 중요한 治療방법이 된다.

또한 患兒의 狀態를 考慮해야 하니 虛弱한 小兒에게 涼瀉法을 一律으로 使用하면 敗證이나 變證이 發生하기 쉽기 때문에 氣血을 調補하거나 脾胃를 調理하는 藥을 먼저 使用하고 나서 驚藥을 써야 한다.

## IV. 結論

1. 驚風의 發生은 小兒의 生理的 特徵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2. 小兒의 生理的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小兒는 純陽으로 少陽之氣에 屬하며 氣血이 不充하고 臟腑가 軟弱하며 神

氣가 怯弱하다.

- ② 小兒는 心肝은 恒常 有餘하고 脾肺腎은 恒常 不足한 狀態이다.
3. 驚風은 여러 가지 誘發因子에 의해서 生理的 狀態가 紊亂해져서 發生한다.
4. 驚風의 誘發因子는 內因인 內傷飲食, 外因인 感受風寒邪, 不內外因인 大驚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5. 驚風의 病理는 대체로 心熱肝風으로 概括되며 誘因들에 의해 熱이 發生되면 그로 因해서 痰이 생기고, 痰이 熾盛해지면 風이 생기며, 風이 熾盛해져서 抽搐이 發生되는 것이 基本 病理가 된다.
6. 驚風이 오래 持續되거나 원래 脾土가 弱한 小兒의 경우 心熱制肺金하고 金不能制木하며 木乘土하여 脾氣不足의 證狀이 발현된다.
7. 驚風의 治法은 急則治標, 緩則治本이 根本이 된다.
8. 驚風은 大概 陽熱한 證候로 涼瀉法이 基本治法이 된다.
9. 危證, 急證일 때는 通關急救法으로 풀어 주고, 急證이 풀리면 原因을 除去해주는 治法을 選用한다.
10. 內因일 境遇에는 消導시키고 外因일 境遇에는 發散시키며 不內外因인 境遇에는 鎮驚安神시키는 治法을 兼用한다.
11. 驚風이 오래되어서 脾胃가 損傷되면 脾胃를 調補하는 것이 重要한 治療原則이 된다.

## V. 參考文獻

1. 江育仁·張奇文主編：實用中醫兒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5.
2. 江育仁主編：中醫兒科學，北京，人民

205) 江育仁主編：前揭書，pp.121~136

206) 張介賓：前揭書，pp.907~909

- 衛生出版社, 1987.
3. 龔信：古今醫鑒，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
  4. 龔廷賢撰：增補萬病回春，서울，醫聖堂，1993.
  5. 南京中醫學院編：中醫學，江蘇省，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
  6. 樓英：醫學綱目，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6.
  7. 東醫小兒科學，서울，麗江出版社，1993.
  8. 萬密齋：兒科卷(幼科發揮)，長沙市，湖南科學技術出版社，1995.
  9. 昉賢：奇效良方，香港，商務印書館，1977.
  10. 上海中醫學院編：中醫兒科學(新編中醫學教材)，香港，商務印書館，1981.
  11. 徐春甫：古今醫統大全(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1.
  12. 薛己：保嬰全書，台北，新文豐出版社，1978.
  13.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台中，昭人出版社.
  14. 孫思邈：千金方，北京，華夏出版社，1993.
  15. 楊維傑編：黃帝內經素問譯解，台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65.
  16. 吳謙等編：醫宗金鑑，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5.
  17. 吳克潛著：吳氏兒科學，台北，新文豐出版社，1977.
  18. 吳錫璜：聖濟總錄，서울，翰成社，1977.
  19. 王肯堂：證治準繩，上海，강보제서국，1982.
  20. 王綸：明醫雜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
  21. 王懷隱：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1979.
  22. 虞搏：醫學正傳，서울，成輔社，1986.
  23. 劉昉著：幼幼新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
  24. 劉完素：河間六書，서울，成輔社，1975.
  25. 李杲：東垣十書·蘭室秘藏，台北，五州出版社，民國73.
  26. 李梴：原本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9.
  27. 李梴著·안병국譯：國譯編註醫學入門(五)，서울，중문사.
  28. 張介賓：景岳全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
  29. 張介賓著·김영남譯：國譯景岳全書(四)，서울，一中社.
  30. 張從政：儒門事親，台北，旋風出版社，民國67.
  31. 傅景華等編：濟世全書，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7.
  32. 錢乙：小兒藥證直訣，江蘇省，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
  33. 丁奎萬編著：東醫小兒科學，서울，행림출판，1990.
  34. 趙廷俊著：及幼方，서울，麗江出版社，1993.
  35. 周定王·朱櫛撰：普濟方，서울，翰成社，1981.
  36. 朱震亨：平治匯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3.
  37. 陳復正：幼幼集成，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38. 秦昌遇：幼科折衷，서울，醫聖堂，1994.
  39. 이희성 이재완 김영신 김덕곤：急驚風の 病因病理에 對한 文獻의 考察，大韓小兒科學會誌，Vol.5, No.1, 1991.